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고독에 대하여

「孤獨六讲」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鄭 善 英

2015年 2月

고독에 관하여<1>

孤獨六講<1> -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鄭 善 英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年 2 月

정선영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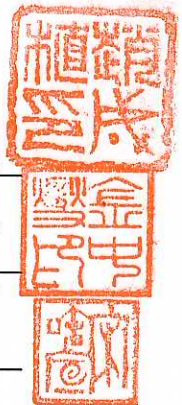
趙 成 植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咳 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5 年 2 月

서문

나는 <고독하기 때문에>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은 후에 소설집의 책 제목이 되기도 했다.

2002년 <<연합문학>>은 기획 행사로 나에게 ‘고독’을 주제로 한 여섯 번의 강의를 부탁해 왔다. 각각 정육의 고독, 언어의 고독, 혁명의 고독, 사유의 고독, 윤리의 고독 그리고 폭력의 고독이었다.

나는 고독할 수 있는가?

나는 종종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좀 더 고독해 질 수 있는가?

나는 고독을 갈망하고,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마치 고독한 생명만이 풍부해지고 화려해 질 수 있는 것처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고독하고, 내 모든 정육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뿐임을 깨닫는다.

나는 많은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동시에 언어의 최후는 더 큰 고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족과 사회 안에서 화목과 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고, 윤리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왜일까? 여전히 변화시킬 수 없는 고독을 느낀다.

나는 폭력자가 충성으로 정적을 깨트리려 하지만, 모든 충성은 거대한 공허함을 향해 발사되는 고독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사회의 질서를 뒤엎고, 계급구조를 전복하자!”는 혁명가의 외침을 들었다. 하지만, 혁명가는 문명의 폐허 위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혁명

가의 최후의 숙명적 고독을 처절하게 알고 있다.

미학의 본질은 아마도 고독일 것이다.

인류는 수 천 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유한한 사유로 무한한 고독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헛수고로 끝이 날 것이다.

나의 <고독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있으며, 아마 아무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걸머진 채 고독의 세월을 지나왔다.

나의 대화는 단지 나 자신의 독백일 뿐이다.

2007년 7월 21일

정옥의 고독

고독은 줄곧 내가 이야기 하고 싶었던 주제이다.

오랫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신문을 펼치면 모든 사건들 뒤에서 어렴풋이 고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시끌벅적한 뉴스 속에서 고독을 느끼게되었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분주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홀시되고 잊혀졌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진 고독이 있음을 아주 어렴풋하게 느낄 뿐이었다.

나는 새로운 시선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든지 간에, 누가 옳고 그르든지 간에 그 희미한 소리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연령, 다양한 역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대만에서 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동영상 이 퍼졌을 때, 나는 남에게 관찰 당하는 자의 마음 속 고독을 느꼈다. 그 폭풍 속에서 그녀는 누구와 대화할까? 그녀는 누구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마음 속 고독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이 내 마음 속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나는 이 사건에는 법률적 판단에 속한 것과 도덕적 판단에 속한 것이 있는데 법률적인 것은 법률로 귀속되고 도덕적인 것은 도덕으로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문학이나 미학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건 당사자들의 마음을 재검토하고 이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뉴스 매체를 따라 떠들며 사건 속 인물들에게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타인의 마음 속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발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만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가는 사회

나는 자라면서 대만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경험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매우 엄격해서 말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은 입만 열면 말 실수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설을 설 때 집안에는 많은 금기어들이 있었고, 많은 단어를 말해서는 안 되었다. 예를 들면 ‘죽을 사(死)’라는 단어나 혹은 ‘사(死)’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었다. 매년 설달이 되면 어머니는 나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별로 말하지 않던 이 글자들이 이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늘 벌을 받았다. 그 뒤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는지 ‘어린이의 말은 금기 없음(童言無忌)’ 이라고 적은 붉은 종이를 벽에 붙여, 나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게 되었다.

그 당시 고민을 이야기 하거나 어떤 말들을 하려면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문학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어떨 때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 속의 인물과 대화하거나 혼잣말을 했는데 이런 느낌은 고독했지만 그러한 고독이 지금의 나에게 있어 무척 그리운 까닭은 고독 안에 어떤 아주 충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이 점점 발달하였으며 정보전달이 빨라졌다. 전화 외에도 응답기, 문자, 팩스, e-mail 등 연락방식이 있다. 매년 여행에서 돌아와 이메일을 열면, 항상 먼저 수많은 스팸 메일을 지우고 나서야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사회는 오히려 점점 더 외로워졌다.

사회의 고독을 느끼게 된 것은 대략 최근 몇 년 사이 이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라디오를 들어도 모두 call-in 프로그램¹⁾이다. 그 침묵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한다. 하지만 call-in 소리에서 오히려 나는 현대인들의 배가된 고독을 느낀다. 특히 call-in 과정에서 시간제한 때문에 몇 십 초 동안에 말을 다 못 마치고 자주 말이 끊기곤 한다.

모든 사람이 급하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말을 다 못 마친다.

1)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 의견을 말하는 시사 토크 프로.

빠르게 진보하는 통신 과학기술은 여전히 우리 내면의 거대하고 황량한 고독을 돌봐주지 않는다.

나는 갑자기 전화가 끊긴 청중의 번호를 물은 뒤 그에게 전화해서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싶어진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자도 당황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call in'프로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찬반을 결정하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찬반 양쪽의 숫자가 계속 튀겨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고독이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마주 할 기회가 없어졌다.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할 뿐이다. 하지만 자신과 대화할 수가 없다.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독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고독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고독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독에 사로잡혀 고독에서 멀어지려 한다면 매우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신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대한 허무를 느끼게 되어 스스로에게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반드시 이 고독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되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고독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행동이 바로 거대한 고독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각 연령대가 직면하는 고독 역시 다르다.

나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은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에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아주 오랫동안 짝사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를 쓰거나 일기를 쓰는 식으로만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다. 그 당시 일기 속 문장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섬세할 수 있었

던 것은 짝사랑의 시간이 길어서 짝사랑의 고민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연 불쾌하고 만족되지 못할 정욕일 뿐일까? 지금 내가 회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 우리는 그때 자신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첫사랑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짝사랑 중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꽃피우기 시작한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파랗게 돌아나는 새싹과 흐드러진 꽃들 앞에서 멍하니 바라보며 생명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기 시작하고, 옷을 더 신경 써서 입고서 짝사랑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며 주목 받기를 기대하기 시작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짝사랑 할 때 당신의 생명이 변화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완벽한 자아로 발전 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대학에서 학과 주임을 맡았을 때 우리 과의 한 여학생이 매일 잠이 부족한 두 눈으로 수업을 들으러 왔다. 그 여학생은 온라인에서 동시에 네 개의 신분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각각의 신분이 다른 이름과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귀는 사람도 다르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궁금해서 이런 젊은이들의 교제방식을 이해하려고 인터넷을 시작했다. 내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 여학생 덕분이다.

정욕의 고독은 본질적으로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다. 정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몸이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의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하거나 또는 사랑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면 어떠한 이름을 쓴다 한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고독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이 천년 전에 쓴 우화처럼 모든 사람은 두 개로 쪼개진 불완전한 개인이다. 일생동안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지만 꼭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쪼개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때로 찾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영원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 훌륭한 우화를 사용해 고독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전통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반쪽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뿐이라 맞게 찾든 아니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내 학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학생은 네 개의 신분으로 찾고 있다. 그녀는 자기에게는 가장 적합한 반쪽을 찾을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기회가 나보다 많을까?’하는 것이다.

만약 나에게 하나의 신분만 있어서 일생에 한 번만 찾을 수 있고, 지금 그녀에게는 네 개의 신분이 있어서 잘못 찾았을 경우 언제나 버리고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녀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일까?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플라톤의 우화처럼 모든 사람은 쪼개진 반쪽이고, 다른 문화와 다른 철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답이 있더라도 고독은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명제라고 확신한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뒤쪽에서 나는 윤리 고독을 말할 텐데 우선 중국의 유교문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유교문화는 고독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소위 오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는 것은 모두 한 생명이 태어난 이후에 주위 생명과의 상대적 관계이다. 나는 이것을 ‘상대윤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유교문화 안에서 그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성스러우며,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깊고, 부부간에 화목하다면 부자, 형제, 부부의 관계에서 고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교가 정의한 윤리는 외적 형식이고, 앞서 말한 ‘일생에 단 한번만 찾을 수 있으며 틀렸더라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 내면의 가장 깊숙이 자리한 황량한 고독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나는 부모 앞에서 매우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유교 사상가의 노여

움을 사는 말이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춘기 때 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였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나 또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혹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와는 관련이 없다.

열두 살 이전에는 내가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님이 나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자라고 나서 몰래 책을 사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본 후에는 그들과 대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그들과 다른 세계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이 세계는 사적인 공간이었고 나는 여기에서 생명의 본질과 맞닥뜨렸다. 하지만 부모의 세계에서는 이것들을 찾을 수 없었다.

예전에 금기를 깨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바쁘게 저녁을 준비할 때 어머니 옆을 맴돌며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라고 물었다. 그 시대의 어머니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주워왔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이랬다. 만약 다시 캐물으면 어머니는 귀찮아하며 “겨드랑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을 것이다.

사실 열세 살의 내가 묻는 것은 몸 어디에서 나왔느냐가 아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생과 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에 일기장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문장들이 가득하다. 하루는 어머니가 갑자기 알아듣고서 정색하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인생 최초의 고독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이런 고독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했지만 즉시 차단되었다.

유교문화 속의 전통적인 자식 교육에서 고독은 발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방안에 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문을 두드리며 “따뜻한 물 좀 마셔라” 혹은 “담을 삶았으니 나와서 먹어라” 하셨지만 영원히 고독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셨

다. 어머니는 내가 방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사춘기인 나에게 있어 고독은 일종의 갈망이었다.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주고, 소설 속에서 나의 인생을 모색하게 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방 밖에서 “이 아이가 병에 걸렸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안 나오지?”라며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장애령(張愛玲)은 대단한 작가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는 새벽 대여섯 시에 일어났는데 방문을 열지 않으면 집안에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 예전에 장애령의 소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성장한 전통사회는 바로 이러했다. 나와 나이가 같은 친구라면, 또 만약 작은 마을 혹은 촌에 살았다면 이웃집에 놀러 간 기억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이 집 저 집 돌아 다녔다. 옛날 사람들은 친구 집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해서 “너의 집에 가도 괜찮겠느냐”라고 묻지 않았다.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모가 엄마를 찾아 왔을 때를 기억한다. 주소조차 안 가지고 와서 골목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엄마가 데리러 나갈 때까지 소리를 질러댔었다.

유교문화는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지 않는다. 장애령의 작품을 포함한 많은 전통 소설에서 신혼부부가 부모가 함께 사는 데 부모와 얹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사랑을 나눌 때 소리도 감히 낼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한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고독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고독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고독을 완성하고 어떻게 고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독을 존중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독을 허락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유교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만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독이 대중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것 이라면 그것은 유교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유럽에서 개인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고독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이 매우 분명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은 모든 개인들에게 자신의 고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독한 시간에서 끌어내어 공공의 평가를 받게 한다. 동시에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독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1949년 중국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대혁명을 겪었다. 1970년대 유럽에 가서 공부할 때 나는 중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50-60년대에 모두 대륙에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모든 반우파 운동에서 첫 번째 발언자와 마지막 발언자를 해서는 안 되고 발언 내용들이 비슷해지고 균중의 뜻을 대강 알았을 때 발언해야 하며 비판 받기 쉬우니 마지막 발언자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유교 사상이다. 아무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고 모두 ‘중용의 도’를 준수하며, 첫 번째도 맨 마지막도 하지 않는다. 유가 사상이 찬미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 문화이다. 분명이 밝혀 둘 것은 나는 집단을 찬미하는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유가사상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집단은 모두가 함께 규칙을 지켜야만 사회 집단이 생존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 가난한 농업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따라서 홀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집단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바로 집단의 비난을 받게 된다.

5.4운동은 근대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으로 인간성이 깨어나는 과정을 대표한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백화문 운동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운동이 모색하려 했던 것은 인간성 가치의 변화로서 기본적으로 유가문화에 대항하고 집단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5.4운동이 외치는 두 개의 구호는 덕(德)선생(민주)와 새(賽)선생(과학)인데 그 중에 민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그 의미는 극소수의 개인을 대표하더라도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소수의 개인을 돌볼 겨를이 없으며 한 명은 말할 것도 없고 1/3의 사람 역시 다른 2/3의 사람만 못하다.

노신은 5.4운동의 중요한 소설가이다. 그의 소설 <이혼> 과 <주점에서>에서 모두 고독한 한 사람이 집단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의 죽고 싶은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 <광인 일기> 속의 곧 미칠 것 같은 주인공은 ‘사람 잡아 먹는 봉건 예절’을 고발한다. 마을의 남자 셋이 한 여자의 절개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것이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 여자의 정절에 대해 비평하는 것으로 변하고 결국엔 어떤 법률적 판결도 거치지 않고 사당에서 그녀에게 칼과 밧줄, 독약을 주며 스스로 마무리 지으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법률보다도 강력한 집단의 공권력이라는 것이다.

1920년, 심종문(沈從文)은 대단한 소설 한 편을 발표했다. 바람이 부드럽고 태양이 밝게 비추는 화창한 날에 한 쌍의 남녀가 길을 걷고 있었다. 손을 잡고 서로 좀 가까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은 풍속을 문란케 했다고 비난하고, 그들을 잡아 현감에게 갔다. 현감은 즉각 목판을 치며 “이 개 같은 년놈 같으니”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소수민족인 동족(侗族)의 부부였다. 한족의 속박과 달리 그들은 연애할 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손을 잡았다. 우리가 지금 심종문의 이야기를 본다면 아주 황당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칼을 들고, “개 같은 년놈”을 베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부부였던 것이다.

집단문화에 대항한다

나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파리에 막 도착했을 때, 자주 불편함을 느낀다. 파리의 지하철은 서로 마주보는 네 개의 좌석이 놓여있는데, 맞은편의 연인이 열렬히

키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길게 늘어진 타액을 보고서도 못 본 척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들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당신이 본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 마다 심종문의 소설이 떠오른다. 이것은 다른 문화의 고독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올림포스산 신들의 금기를 어기고 자진해서 불을 인간 세상에 가져다주어 제우스의 벌을 받았다. 제우스는 쇠사슬로 그를 바위에 묶고, 아침이면 독수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심장과 간, 폐를 먹게 했다. 저녁이 되면 상처는 회복되고 새로운 심장과 간, 폐가 자라났다. 그는 매일 반복해서 잡아먹히는 고통을 참아야 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 중에 비극적 영웅의 원형이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우리는 돌출 행동을 하다가 능지처참 당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노신의 소설 <약>은 추근(秋瑾, 중국 근대 여성혁명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시 마을에는 폐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폐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목이 막 잘린 사람에게서 뱀어져 나온 피를 찍은 찐빵을 먹는 것이라고 믿었다. 강렬한 대비는 이 소설의 놀랍고 인상적인 부분이다. 한 쪽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참수되어 사람들 앞에 전시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우매한 민중이 따뜻한 찐빵에 피를 묻혀 돌아가 자기의 아들에게 먹인다. 나는 5.4운동이 가장 대항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집단문화 속에 있는 경악할 정도로 우매한 ‘그것’이라 생각한다. 이 우매함 때문에 고독한 추근은 형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의 피는 폐결핵에 걸린 한 아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었나? 노신의 소설 <광인일기><약>등은 모두 전통사회가 억압하는 고독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산문은 더욱 명확하다. 예를 들어 <고독한 사람><술집에서>등은 모두 고독을 주제로 삼고 있다. 노신은 극도로 고독한 사람이었다. 고독은 그로 하여금 줄곧 집단을 피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작가, 문학가로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자신의 길을 걷고 견지하고, 유지하려 했던 고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가 초기에

발표한 작품은 <신청년>잡지에 게재되었다. 그래서 <신청년>잡지의 관계자들은 그를 기수로 내세웠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은 기수가 될 수 없다. 기수가 되면 뒤쪽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뒤따를 것이므로 고독은 모순이 되고 그는 반드시 떠나게 된다. 그는 떠났지만 또다시 좌익연맹에 의해 지도자로 추대된다. 공산당에서는 그를 가장 훌륭한 문학가로 여겼다. 그는 집단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다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갔다. 한 사회의 영혼의 사색자로서 그는 반드시 장기적인 고독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부서진 고독

앞서 서술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유가문화이다. 유가는 윤리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고독을 억압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한무제가 유가만을 존중하기 시작한 이래, 유가문화는 정통문화로써 역대 군주들의 추앙을 받았고 공자에 대한 제사는 군주의 관행적 행사가 되었다. 유가는 더 이상 단순한 철학사상이 아니라 정치적 침투가 이루어진 ‘유교(儒敎)’가 되었다. 이로써 집단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 되었는데 공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독은 부서졌고 개인은 이것과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에게서 노자와 장자가 있다. 노장은 개인의 고독과 집단에서 벗어나는 사상을 비교적 장려한다. 장자의 철학 속에서 ‘홀로 하늘과 땅의 정신과 감응한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고독하게 천지정신과 대화하는 것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유학전통에서 볼 때 이단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목소리는 시종일관 정통이 될 수 없었다. 그저 문인이 관직을 그만두거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정치적 좌절을 맛보고 산속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통쾌함이 되어 줄 뿐, 온전한 시대의 기풍을 형성할 수는 없었다.

역사상 몇몇 시대,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교의 세력이 조금 쇠퇴해져 죽림칠현과 같은 고독한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한, 당, 송, 원, 명, 청 등 ‘위대한 시대’가 될 수 없었다. 죽림칠현의 고사를 읽어보면 중국의 천 년

의 긴 문화 속에서 드물게 출현했던 고독한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결말은 대부분이 비극적이라고 나는 친구들에게 종종 이야기 하곤 한다. 그들의 삶 속 고독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반드시 책을 저술하여 이론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꼭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독으로 집단의 타락에 항의한다. 나는 위진남북조시대 죽림칠현의 소(嘯, 길고 높은 소리를 냄)를 좋아한다. 이 글자는 후에 무협소설에만 남게 되었다. ‘협객(俠)’들만 최후의 고독을 간직하고 있고 선비(士)들은 모두 정치관으로 갔기 때문이다.

무협소설 속에도 깊은 고독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다. 황약사(黃藥師)²⁾는 정말 괴짜가 아닐까? 중국의 저명한 무협소설 작가 김용의 작중 인물들은 모두 이렇다. 그들은 고독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는 권법을 수련하는 고묘파의 소용녀³⁾ 같은 사람이 어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산송장’이 아니겠는가? 소위 말하는 ‘산송장’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항하려고 한다. 산사람이 더 이상 산사람이 아닐 때, 죽은 사람이 비로소 살아난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 무협소설을 아주 좋아했다. 소설 속 인물이 정상에 오를 때 정신적으로 고독하고 쓸쓸하다.

정욕 고독의 분출구를 찾다

중학교 시절은 나의 정욕이 가장 들끓던 때였다. 당시 반에서 포르노 사진과 음란 소설들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많지 않았다. 남학생들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읽는 것은 무협소설이었다. 무협소설이 음란 소설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선생님은 별로 없었다. 정욕은 전환되는 것이다. 극도의 고민 속에서 고독으로 변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욕의 분출은 아주 쉬워서 포르노 사진을 보거나 음란 소설을 보면 생리적인 충동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고독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즉 청소년 시기의 정욕의 전환은 매우 섬세하고도 극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

2) 김용의 소설 射雕英雄傳에 나온 인물.

3) 古墓派의 小龍女는 김용의 神雕俠侶에 나옴.

다.

나는 좀 특별했다. 그 당시 나는 무협소설을 읽지 않고 누나의 영향을 받아 <홍루몽><제인에어>등 비교적 문학적인 작품을 읽었다. 하지만 정육이 변화하는 본질은 같았다. 정육의 가장 일차적인 표현은 포르노 영화나 음란 소설을 보고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것은 종종 자신을 더욱 고독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무협소설을 읽거나 혹은 기타 문학소설을 읽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반 학우들은 어디를 가야 ‘사부’를 만날 수 있는지, 대만의 어느 산 위에 은둔 고수가 있는지, 어떤 무공이 <달마역근경>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어떤 학우는 실제로 두껍디두꺼운 <달마역근경>을 써내기까지 했다. 그것은 정육의 불가사의한 전환이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삶의 또 다른 분출구를 찾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구조와 심리는 남성과 크게 달라서 나는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시절 유행했던 <창 밖>⁴⁾등 소설을 정리해 본다면 정육이 변화하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 밖>은 한 여학교의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야기다. 통속적인 이 이야기는 되레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문학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일차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차적인’ 만족인데 그것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우리가 고독을 마주하는 방법이 다를 때, 그 답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정육의 고독을 논함에 있어,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만약 정육의 고독이 생물학적 발육의 영향 때문이라면 전통적 경전 중 어떤 책이 정육의 고독에 답해 줄 수 있을까? <논어>? <대학>? <중용>? 혹은 <13경>의 어느 한 권일까? 아마 <시경>에 조금이나마 있을지 모르겠다. “구우구우 물수리는 강가에 앉아있네. 요조숙녀야말로 군자의 배필이구나.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

4) <窓外>, 대만 여성 작가 瓊瑤의 연애소설.

速)” 이 구절은 새를 이용하여 남녀의 구애에 비유했지만, 끝에 가서는 이것은 ‘왕비의 덕(后妃之德)’이지 정욕이 아니라고 말한다.

경전 속에는 정욕의 고독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가려졌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 속에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고독을 해결해야 할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청소년 시절에는 <논어>를 외우고 <대학><중용>을 외웠다. 이것들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기와는 대화가 너무 적다.

오히려 <홍루몽>은 당시의 나와 비교적 가까웠다. 13살의 가보옥(賈寶玉)도 성적 환상이 있고, 6장에서는 몽정 내용까지 나온 것을 보고 나는 ‘보옥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깜짝 놀랐다. 지금 와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작가는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보옥이 열세 살이 되었고, 열세 살의 남자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알려준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설이다. 오랫동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지 못하게 한 소설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열세 살의 보옥과 임대옥(林黛玉)이 몰래 본 책이 고전 문학 <목단정(牡丹亭)><서상기(西廂記)>이고, 그들이 <서상기>를 몰래 본 후에 말다툼을 했을 때, 임대옥은 “삼촌한테 가서 말할 거야! 삼촌은 너를 반죽음이 될 때까지 때리실 거야”라고 말한다. 그 책들은 봐서는 안 되는 금서였기 때문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우아한 <목단정>과 <서상기>도 금서였다면, 우리는 전통 문화 속에서 정욕의 고독이 얼마나 억압 받았을지 그 심각성을 알만 하다.

죽림칠현의 고독

하지만 대대로 적지 않은 사람이 유교의 원칙에 대해 반격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죽림칠현이 많은 전복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방금 ‘소(嘯)’자를 언급했다. 입구 변(口)에 엄숙할 숙(肅)자로 이루어져있다. 그것은 고독한 사람이 대자연 속으로 걸어가며, 입을 벌려 크게 외치는 모양이다. 우리는 지금 완적(阮籍)과 기타 죽림칠현의 소(嘯)를 들을 수 없다. 그러

나 <세설신어(世說新語)>에서는 완적이 길게 소리칠 때 산이 공명하고 골짜기가 메아리로 응답하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나온다. 나는 그런 폐부에서 나오는, 사람들 눈에 뜨거운 눈물이 글썽거리게 만드는 고함은 매우 감동적일 것이라 믿는다. 많은 사람은 ‘소(嘯)’를 노래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신의 문집을 ‘납합⁵⁾(唳喊)’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가장 큰 억압 속에서 포효하는 소리이다. 그래서 이 고독한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이런 불가사의한 고함을 지르는 시합을 하기로 약속한다. <세설신어>를 보면 ‘소(嘯)’라는 글자가 사실은 극도로 고독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이 정신은 무협속설 <소오강호(嘯傲江湖)> 속에 남았지만, 이후 발음이 같은 ‘소(笑)’자로 와전되어 <소오강호(笑傲江湖)>로 전해지게 되어 이 제목에서는 더 이상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분과 오기를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죽림칠현은 일생 동안 별 대단한 사업을 이루지 못했고, 유교 문화에서 요구하는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운다.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세월을 열어준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 爲往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다섯 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다. 열세 살이 되어 정육이 혼란스러웠을 때, 이런 것들을 읽었다면 마음 속 혼란한 욕망이 가라앉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전들은 위대한 사상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감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왜 완적이 산속으로 들어가 고함을 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완적이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독특함은 바로 대역무도

완적과 관련 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그가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는 없고 그의 처만 있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어여쁘게 생겨서 완적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버렸

5) 외침이라는 뜻

다. 이 때문에 난리가 났고 소문이 퍼졌다. 후에 이 소문은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의 귀에 전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완전히 언제 당신들의 그 예절을 지키더냐”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아름다움에 특이함이 더해지면 죄악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머리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면 바로 지적을 받던 것을 기억한다. 모두가 당연히 공통의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곱슬머리 유전이 있어 파마 했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다. 아버지는 예전에 편지 한 통을 써서 나에게 들려 교관에게 가져가게 해 곱슬머리가 파마한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교관은 편지를 구기며, “당신들은 아직도 거짓말 하고 있다”고 소리 질렀다. 그것은 내 기억 중에서 매우 또렷해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 머리스타일이 다른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

다들 알아챘을지 모르지만 집단 규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머리모양의 불일치이다. 군대든지 아니면 감옥이든지 첫 번째로 없애야 하는 것이 머리털이다. 특히 신화 속 장사인 삼손은 머리털을 자르자마자 힘이 없어 졌다. 머리털은 일종의 상징이고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는 가장 작은 표현이다. 그래서 청나라 병사가 동북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목숨을 살려주면 머리털을 남겨 놓지 않고, 머리털을 남겨 놓으면 목숨을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다. 머리털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때, 여자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우리는 학교 밖에서 여자 아이들의 치마가 아주 짧은 것은 자주 보았다. 그러나 교문에 가까워지면, 그녀들은 넓은 허릿단을 늘였고 놀랍게도 치마가 길어졌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 계기이다.

두발과 치장은 개인의 일이다. 하지만 집단 사회에서 공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집단사상이 어느 정도 까지 커지면, 아무도 감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 아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허벅지를 드러내고 싶지만, 학교 규칙을 위

반하는 것은 원치 않아 조금 번거롭더라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허릿단을 늘였다. 이러한 규칙 속에서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대역무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회라면 독특한 행동을 격려하여, 모든 개인의 독특한 행동이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이 독특한 행동을 억압할 때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 사회에 내주고 이와 동시에 삶의 가치의 다양성도 희생했다.

문화가 정욕에 가한 억압

나는 완적의 네 가지 일화를 말하곤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 길게 소리 친 일, 길 가다가 길이 끊겨서 통곡한 일, 친구의 부인 앞에서 잠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친이 돌아 가셨을 때 울지 않은 일이다. 유교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송곳으로 찢어서라도 반드시 울어야 한다. 울지 않는 것은 불효다.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때는 곡하는 사람이라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완적은 울지 않았다. 조문객이 조문할 때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다가 조문객이 다 떠나자 그는 갑자기 몇 되나 되는 피를 토했다. 이것이 그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모친이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일인데 왜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나 하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집단 문화에서 혼례나 장례 모두 연극과도 같으며 진정한 감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전통 유교의 집단 문화가 개인과 만나면 죽림칠현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개인이다. 그들의 삶은 고독하고 주위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여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고 물어보고 싶어진다.

이 사회에서 완적이 점점 줄고 있다. 바로 이 때문이다. 내가 선생님을 할 때,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왜 이러느냐?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라고 말한 적

이 있다. 이 말 하고 나서, 나는 갑자기 매우 두려웠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 나도 튀는 아이였고 선생님은 나에게 같은 말을 했었다. 나는 이런 선의와 사랑에서 나온 말이 고독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들을 다치게 해서 그들의 고독이 드러나지 못하게 했을 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간 나는 참회와 자기반성을 자주한다. 대학에서 교수를 한지 이렇게 오래 되었고,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전에는 고독한 학생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한 번은 여학생이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두시에 담장을 둘러싼 철조망 위에 여섯 장의 솜이불을 쌓고 넘어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학생들에게 시를 암송하고 서예를 쓰는 벌을 주고 교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속으로 그녀들이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녀들은 그러고 나서도 결국 나갔다.) 이 철조망과 관련해 더 재미있는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교무회의 중에 “이것은 독일에서 수입한 유태인 집단수용소 전용의 원형 철조망으로 각 방향에서 모두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나에게 득의양양 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무 살 정도의 여자아이들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다.

<목단정>이 말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야기다. 열여섯 살의 두려낭(杜麗娘)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다.⁶⁾ 그래서 정원을 노닐다 놀라 꿈에서 깬다. 그녀가 놀라서 깬 꿈은 본래가 일장춘몽이었다.

하늘 향해 고향칠 수 없다

나중에 나는 한 학생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 대만에서 학생운동이 막 시작하는 무렵, 어떤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붙였다. 그 내용은 학교 당국이 나무를 베는

6) <목단정>의 줄거리: 소녀 두려낭은 꿈속에서 한 남자와 연애를 하지만 깨어나면 꿈이었다. 결국 병에 걸려 죽었지만, 나중에 꿈속의 남자가 나타나 무덤을 열자 두려낭도 환생하여 둘이 부부가 되었다.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학생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용감한 ‘덜렁이’였다. 자기의 이름까지 써넣은 것이다. 찬동하는 아이들은 갈채를 보내며 “대담하게도 총장의 의견과 다르다”, “그가 정의를 드높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들은 대자보 아래쪽에 총장을 욕하는 상스러운 말을 적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모두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분별력 없는 덜렁이만 잡혔다.

학교 측은 이 일을 엄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는 학과 주임이었는데 나는 바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장은 “회의를 열어야겠다. 바로 비행기를 탈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나에게 10분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그 학생을 구제했고, 그는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 학생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징계 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늘 이 일을 생각하고 있다.

집단 문화에서 ‘덜렁이’ 같은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입는다. 그들은 성격이 곧고 할 말이 있으면 바로 말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다치게 한다. 나는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보호하였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총장이나 학생처장에게 가서 끝까지 이치를 따지고, 명확하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벽을 넘던 여학생이든 아니면 벽보를 붙인 학생이든 모두 내가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호이지 사실은 그들의 고독을 해치고 그들이 고독이 완성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집단과 같게 만들려고 궁리하고 있었다.

완적과 같은 인물들 모두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비로소 그들의 울음소리가 모든 문화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 당시에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보호했다면 그들은 포효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독하게 살아가기

죽림칠현 중의 혜강(嵇康)은 공주를 처로 맞아 황가의 사위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부마의 신분을 이용해서 명성을 얻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소인배의 모함을 받았다. 그가 사회 관습을 어겼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형장에 끌려가 참수되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관습을 어겼다는 것일까? 단지 여름날 두꺼운 무명옷을 입고 버드나무 아래서 화로에 불을 지피 철을 주조 했을 뿐이다. 이것은 눈에 띄는 별난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집단의 이성적 문화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법에 의한 판결인가 아니면 도덕에 의한 판결인가?

혜강을 형장으로 끌려가게 한 죄상은 “위로는 천자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왕후에게 봉사하지 않았다. 시대와 세상을 무시하고, 오늘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풍속을 어지럽혔다(上不臣天子, 下不事王侯, 輕時傲世, 無益於今, 有敗於俗)”것 이었다. 이 죄목은 역사 속에 남아 모든 사람의 공통의 죄상이 되었다. 우리는 관습에 벗어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던 것이다.

혜강은 마흔 살에 처형되었지만, 다행히도 좋은 벗인 향수(向秀)가 그를 위해 <사구부(思舊賦)>를 썼는데, 그가 형장에 오를 때 석양은 하늘을 물들이고 사람의 그림자는 땅에 드리웠다고 기록했다. 혜강은 미남이었다. 키는 팔 척이나 되고 얼굴은 옥처럼 잘 생겼다. 그가 외출할 때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대음악가였기 때문에 처형되기 전에 삼천 명의 태학 학생들이 모여 무릎을 꿇고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혜강은 <광릉산(廣陵散)>를 연주하고 나서 한탄하며 말하기를 “광릉산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혜강은 어쩜 이렇게 이기적 일까. 죽기 전에도 곡을 남기려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강은 모든 사람이 다 <광릉산>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만약 고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 자신만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예술,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고 잘 모르면서 고상한 척하는 것일 뿐이다.

매번 향수가 쓴 <사구부>를 읽을 때면 늘 감동이 밀려온다. 한 고독한 삶의 일탈이 집단문화의 교조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이다.

죽림칠현의 고독은 문화 영역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빛을 발했다. 비록 금세 덮어졌지만 말이다. 단일화 된 문화 권위 아래, 개인은 빠르게 집단 속으로 사라지고, 죽림칠현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광인이 되었다. 미치광이 말고 또 누가 가래를 지니고 다니면서 만일 자신이 죽으면 바로 묻어 달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고독은 확실히 죽음과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삶의 본질인 고독

유가의 집단 문화는 고독 이야기를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 내 어머니 세대가 음력선탄 ‘사(死)’ 혹은 비슷한 단어를 금기시하는 것에 까지 줄곧 영향을 미쳤다. 음력선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단어로 ‘사(死)’자를 대체하고,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두려워한다. 그것은 분명 확실한 결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글자를 사용해 대체한다. 세상을 떠나다, 세상을 등지다, 별세하다, 승천한다…… 모두 ‘죽음’을 미화한 글귀들이다.

죽음은 생명의 본질적인 고독이며 비켜 갈 수 없는 숙명이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소설 <벽>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썼다. 그는 계속해서 죽음을 탐구했다. 죽음은 이렇게 실체적인 것이다. 장자도 죽음을 언급했다. 그가 가장 하기 좋아하는 일은 해골을 응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마지막에 해골을 베고 잠들었다. 잠이 든 후에 해골은 곧 그에게 말을 걸어 그가 살았을 적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장자에게 알려줬다. 이것이 장자의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는 죽음과 대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 공자에게도 독특한 사고를 가진 제자가 어렵게 나타났다. 그 제자는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곧바로 꾸지람을 들었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하지만 어떻게 죽음을 묻지 않

을 수 있을까? 죽음은 삶 속에서 이처럼 중요한 일이다. 어느 한 문화가 만약 죽음을 회피한다면 사실 그 문화는 정말 유약한 것이다. 유가 문화에는 물론 낙관성과 적극성, 분발의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유가의 가장 큰 결함은 시종일관 죽음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에서 죽음은 말 할 때는 항상 아주 큰 과업과 관련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생취의(捨生取義)’ 등이다. 이와 같이 죽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는 훈련은 이런 방식으로 죽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생 중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어렸을 때 나는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고려하지 않고 뛰어들어 그를 구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만약 불행히도 익사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 동상을 세워줄 것이다. 제목은 ‘사생취의’다. 한 위대한 철학이 결국엔 아주 황당한 교조가 되어버렸다.

만약 생명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엾게 여겨 구조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면 인간성의 가치 중에 단연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인(仁)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해쳐야 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 나의 등에 ‘진충보국(盡忠報國)’⁷⁾이라고 새겨져 있지 않다면 국가에 충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고독과 윤리규범

충, 효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고독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이러한 우리가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윤리규범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화의 성숙은 다각적 관찰에서 오는 것이지 일방적 단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유가문화에는 위대한 점들이 있고 공자의 철학도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하나의 사상이 홀로 거대

7) 남송(南宋)의 장군 악비(岳飛)의 등에 어머니가 새긴 ‘盡忠報國’ 문신이 있다고 전해진다.

해진 후에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현재 유가문화는 이미 쇠미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가치관, 윤리관 및 언어 양식은 모두 본질적으로 여전히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가’는 이미 철학의 범주를 벗어난 일종의 생활 방식이다.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즉시 학과장의 직권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익숙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유가’이다. 왜 나는 그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는 의제가 부족하다. 정욕을 포함해 모두 의제가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나의 첫 직장은 사립대학교였다. 나는 학교 내 열 세 명의 1급 주관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학생에게 증징계를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회의를 열고 열 세 명의 주관이 모두 서명한 후에 비로소 통과 되었다. 이런 일은 보통 학생처에서 결정하고 회의에서는 최종 확인만 하기 때문에 큰 논쟁은 없었다. 내가 처음 참가했을 때 한 가지 안건이 있었다. 그것은 1977년의 일이다. 한 남부 지방학생이 북쪽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밖에서 방을 빌려 자취를 했다. 그런데 자취방 집주인이 학교에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이 학생의 품행이 불량해서 그가 집에 없을 때 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 죄목으로 학생을 퇴학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사건의 전말을 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바로 서명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의견을 말했더니 옆에 한 사람이 “장선생님은 프랑스에서 돌아 온 사람이라 성관념도 역시 비교적 개방적이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것이다.

이 안건이든 아니면 앞에 언급한 자기반성이든 사실 모두 자기도 모르게 집단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일들이 모두 ‘오래 그러려니’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후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왜 처음에 그러려니 했을까” 하고 돌이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고독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고독은 일종의 도덕의식이므로 반드시 자신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집단의 도덕

의식은 종종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탈바꿈 한다. 서양에서 도덕관은 이미 개인의 자기 점점 영역으로 들어 왔으며, 타인에 대한 비판을 도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도덕이라 한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정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도망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과 도망가는 것 중에 독약을 마시고 죽는 것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사형이 민주적 투표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러한 도덕의식을 준수하고 이러한 결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이다. 오늘날 사회 안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정치가든 소시민이든 모두 떳떳하게 다른 사람의 부도덕을 지적하며 욕하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어느 날 고독이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려 도덕의식을 점검하도록 도와 줄 것이며, 이때가 되었을 때 도덕정서가 비로소 싹을 틔울 것이라 믿는다. 완적이 모친의 장래에서 울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불효하다고 욕했지만 그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본 단 한 명의 친구가 이 일을 <세설신어>에 기록했다. 그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도덕정서가 일종의 연기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덕이 일종의 연기가 되면 그것은 거짓이고, 다양한 형식의 연극으로 변한다. 가장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말과 행동은 분리되기 시작한다.

삶에 대한 의심

나는 책 몇 권을 출판한 적이 있다. 미학과 시에 관한 책도 썼고 소설과 산문도 좀 썼다. 나는 나의 마지막 저서는 참회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장 좋은 문학은 가장 진실한 자서전이라고 믿는다. 현재 나는 그것을 쓸 용기가 아직 없지만 이미 구상 중이며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두리몽실하게 일을 수습하는 사람, 벽을 넘으려 했던 일이나 징계를 감추어주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완적이냐 혜강이 될까?

이것은 모두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만은 한 발 떨어져서 유가 문화 전통에 대항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은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 있지만 유가 정통을 계승한 문화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유가 전통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가 짊어진 부담은 중국 대륙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내가 상해에 갔을 때 중국 대륙은 개혁개방 이후 고독이 갑자기 등장했으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개인도 출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마도 대만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고독 혁명을 끌어내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 같다.

가정과 윤리의 구속의 거대함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말은 그럴 듯하게 하고 있지만, 여든넷의 어머니 앞에만 서면 나는 또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어떻게 자아를 논하고, 무슨 정욕의 고독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평소대로 문 앞에 서서 이웃과 함께 내가 어렸을 적 침대에 오줌을 싼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셔서 나를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게 만드신다. 어머니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이게 뭐 못할 말이나” 라고만 하신다. 사실 나의 어머니는 다른 많은 어머니들과 같다. 늘 손에 가위 하나를 쥐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주로 자르신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관의 손에 있던 그 가위보다 훨씬 더 무섭다. 이 보이지 않는 가위는 ‘사랑’ 혹은 ‘관심’이라고 부른다. 이 가위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고독으로 향하는 최후의 관문이 되었다.

우리 문화에서 ‘사랑’ ‘관심’ 혹은 ‘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결정은 모두 ‘맞다’. 상대적인 논의나 의심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심이 없으면 고독이 움틀 수 없다. 왜냐하면 고독은 생명이 생명 자체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는 감히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으로 반드시 인(仁)을 이루어야 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도 감히 말할 수 없다. 노신의 소설 속 추근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그 신선한 피로 찰빵 하나를 적셔 폐결핵을 앓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엔 그 아이도 구할 수 없었다. 이 훌륭한 문학가는 유가의

살신성인, 사생취의 관념을 전복시켰다.

삶의 의미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유가문화는 삶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늘 강조한다. 하지만 실존주의에 있어 존재는 하나의 상태이다. 본질은 존재한 이후에 천천히 찾아내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너의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했다. 우선 존재의 고통을 의식해야만 비로소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70년대에,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실존주의는 대만에서 매우 유행하는 철학이었다. 연극이나 문학에도 들어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에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었다. 두 사람이 황무지에 앉아 ‘고도(Godot, God에서 따옴)’라는 사람을 기다린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결국 연극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는다. 삶은 바로 황무지를 건너가는 것이다. 신도 오지 않고, 구세주도 오지 않았다. 삶의 의미와 가치도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때 이것을 보고 나서 감동의 도가니였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부모님, 선생님 등 어른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준다. 나 역시 선생님이 된 후에 반드시 이 말을 했다. 나는 학생에게 “만약 삶이 의미가 없다면, 살 가치가 있을까?”라고 반문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나와 이 학생의 관계는 사제관계가 아닌 친구관계가 될 것이고,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삶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살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자신이 없다. 문학에서는 종종 의미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는 살아간다.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갑충으로 변한 사람을 통해 “만일 어느 날 우리가 벌레 한 마리로 변한다면?”이라고 반문하고, 또 노신의 <광인일기>에서 말 한 것처럼 사람이 바로 벌레라고 한다면 이 삶은 의미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라고

묻는다. 내 생각에, 어쩌면 삶의 의미는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찾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찾기 시작할 때, 그 상태가 비로소 의미인 것이다. 현대의 문학은 과거의 “태어난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뒤집었고, 끝없는 탐구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제시했지만, 모두 궁극적 답안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천카이거(陳凱歌)의 영화 <황토지>속에 그 황량한 토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흙과 같다. 한 평생 이름도 없이 사는 그들은 열심히 살아간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 굳게 믿는다. 아마도 이것이 다른 형식의 삶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삶의 의의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일 것이다. 나는 의미는 반드시 자신이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엄마를 만나기 전에 주사 한대 맞고 삶을 마친다면, 그렇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실존주의 작가 까뮈(Albert Camus)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소설에서 “만약 잣난애가 바로 죽는다면 그는 천당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다. 그의 물음은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 집단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가 다 그렇게 부조리(absurd)한 것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문화는 ‘부조리(absurd)’의 문제를 토론할 수 없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오히려 이것을 중요한 명제로 여긴다.

결말의 속박을 내던지다

카뮈의 <이방인>(Létranger)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Létranger를 번역하면 ‘이방인’이다. 사실 고독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설

에서 한 프랑스 청년이 한 아랍인에게 총 6발을 쏘고,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지만 모든 심판은 그가 총 여섯 발을 쏜 것과는 무관하게 돌아간다. 오히려 그가 모친의 장례에서 밤을 지새울 때 울지 않았고, 모친의 장례에서 풍속을 어기고 화려한 넥타이를 댔으며, 장례를 마친 후 바로 여자 친구를 데리고 해변에 가서 휴가를 보냈고 또한 성관계까지 했다는 것들이 증거로 나열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가 사형을 판결 받는 증거가 된다.

사형 전에 신부가 와서 “영혼이 천국에 갈 기회가 아직 있으니 마지막 기도와 참회를 하라”고 말했다. 이 청년은 거친 욕을 퍼부으며 말했다. “내가 여섯 발을 쏘았으니까, 뭐 그리 말이 많아!”

만일 여러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소설을 다시 펼친다면 마지막 장이 정말 잘 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호송차는 동틀 무렵 출발한다. 하늘에 별을 보고 그는 삶이 이렇게도 충만한 것인지 일찍이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소설 전체가 찬양하는 영웅으로 변한다. 유가와 집단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살인자가 영웅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정말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 소설은 외국에서는 상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라면 지금까지도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설의 내용이 관습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천진홍(대만의 납치살인범)을 주인공으로 삼아 마지막에 그를 영웅으로 서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의 좋고 나쁨은 결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제이다. 이 형식 안의 고독과 모든 관습을 벗어난 부분에서 인간성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소설가들은 문자로써 그의 삶 속의 사소한 것들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자신이 없고, 심지어 삶의 고독한 면을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이 나쁘게 변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어른들이 “이 소설은 보면 안 된다, 보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 내 생각에는 인간성에 대한 무지야 말로 사람을 나쁘게 변화시킨다. 연민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진홍의 뉴스들 가운데,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총살형 집행 후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시체가 옮겨지는 장면이었다. 만약 내가 소설을 쓴다면, 아마 이 부분부터 쓰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있어 여전히 하나의 생명이고, 그의 죽음은 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집단문화 속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속박이 이러한 특이한 ‘이슈’를 흐지부지 끝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싶다.

나는 ‘주인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슈’라는 말을 썼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본 영화는 늘 마지막 결말부분에서 문장 하나가 나온다. “이 사람은 나쁜 짓만 일삼아, 결국 엄밀한 법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후에 나는 이 영화들을 다시 보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벌써 도주한 것을 발견했다. 다만 당시의 관념으로는 결말에 이런 말을 붙이지 않으면 관객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악인에게는 나쁜 응보가 있어야 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보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힌 선악관을 가지고 문학작품은 ‘문이재도(文以載道)’해야 한다고 요구 할 때, 문학은 과정의 묘사를 잃고 결말만 남게 된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받은 글쓰기 훈련은 이와 같았다. 우선 결론이 있어야 했는데 모두 형식화된 결론이었다. 예를 들어 과거 소풍 가는 글을 쓸 때에도 마지막에는 중국 대륙에 수억 명의 도탄에 빠져 고통 받는 동포를 떠올려야 했다.

미리 결론이 나와 있다면, 사고나 추론의 과정은 있을 수 없다. 소설을 쓸 때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은 ‘선결론’의 관념에 저항하고, 나 자신이 소설 속 인물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내 글쓰기의 길이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만 전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 정해진 결론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충분히 성숙하게 사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중국동포들을 구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문장을 이제는 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사고력이 바로 생겨났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사실 지금 사회사건에 대한 보도, 심지어

어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마저도 모두 미리 결론이 나와 있다. 선거철이 되면 더 분명해진다. 모두 미리 결론을 내린 후에 증거를 수집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고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사고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들은 마치 갑자기 권위적인 체제에서 뛰쳐나와 과거 모든 것이 우매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다른 세상이 와야 한다고 열을 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발을 구르는 방식은 당시에 어느 위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발을 구르던 사람들의 자세와 똑같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심정으로 발을 구르고 울고 있다. 다만 우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 이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고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개인의 독립성은 과감하게 대중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의심되는 것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결론이나 결말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고독한 사람, 더 많은 반항아, 더 많은 완적과 혜강이 나와 용감하게 다른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저 놈은 지금 장난치고 있을 뿐이다”라고 여길 것이다. 당신이 결론을 벗어나 생각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제기한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논리(logic)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logos에서 유래했다. ‘같지 않다’라는 뜻이다. 상대는 이쪽 면을 말하고 나는 저쪽 면을 말하고 나서야 ‘합’을 이루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긴다. 만약 한쪽 면의 의견만 있다면, 사고는 만들어지지 못한다. 나는 좋은 문학이 제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고독은 삶의 원만해지는 시작이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출판한 작품 중에 판매량이 비교적 좋은 것은 모두 비교적 온화하고 인정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온화하고 정이 돈독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저녁에 담을 넘으려는 학생들이 돌아가도록 도와 준 일이 있다. 소설 속에 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만한 결말이다. 나는 반항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면,

<고독하기 때문에>, <섬의 독백> 두 작품은 소수의 독자만 좋은 평을 해주었을 뿐이다. 나는 이 작품을 선택한 독자와 교류하며 내 고독을 더 자신감 있게 견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고독이 삶의 훌륭한 시작이므로 자신과 독대한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법도 알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첫 번째 연애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시를 써주고, 자기와 대화하고, 어느 한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세상을 접할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밖에서 목적지 없이 마구 들쭉시며 다니는 삶은 고독을 가장 두려워한다. 70년대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뉴스 기사 한 편을 보았다. 사회 심리 학자는 파리의 직장인들이 집에 돌아오면 바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지만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다만 소리나 영상이 옆에 있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기사는 도시화 후에 고독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공업 사회 속의 사람들이 자신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전화, 팩스,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당신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 후에 다시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의 컴퓨터 사용이 대만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기사가 사람이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쳐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파리에 간다면 아주 놀랄 것이다. 그들의 집에는 컴퓨터도 없고 하루 24시간 내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가끔은 속도와 깊이가 충돌하는 것 같다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천천히 감정을 축적하고, 감정을 북돋을 수 있을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 할 때, 영원히 고독한 상태일 것이며, 빨리 달릴수록 고독은 더 바짝 뒤쫓아 올 것이다. 플라톤의 우화에서 말하는 또 다른 반쪽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늘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드디어 ‘맞는’ 반쪽을

찾는다 해도 인내심을 잃고 급하게 떠날 것이다.

‘맞는’ 또 다른 반쪽은 같이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오고 가면 다른 반쪽의 진정한 모습을 분간할 수 없다. 우리는 긴 조건을 나열하며 부합하는 사람을 찾곤 한다. 키, 체중, 직업, 수입 등. 사이버 교제는 특히 더 분명하다. 교제 조건만 입력하면 한 무더기의 명단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모두 맞지 않는 것 같다.

간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두 간소화하기 힘들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자신과의 대화는 이러한 외재적인 것들을 서서히 가라앉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반쪽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생명의 반쪽과 부합하는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고독하지 않고 생명이 매우 풍요롭고 충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금병매>를 읽고 정옥의 고독을 이해하다

우리가 정옥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은 매우 본능적인 감각, 성, 기관, 손발이다. 우리가 해방에 급급하고, 정옥의 고독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에야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일찍이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었다. 중국도 명나라 때에 <금병매>가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친구들에게 정옥의 고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병매>를 읽어야 한다고 자주 권한다. 장애정도 이에 동의했다. 그녀는 <금병매>가 <홍루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보았을 <금병매>는 축약본이라 책의 전 면모를 볼 수 없으므로 만력(萬曆)년의 원작을 찾아보길 권한다. 명나라가 상업문명을 건설한 시대였으며, 상업이 시작되면 감각기관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역시 이와 같다. 내가 기억하기로 어렸을 때 대만은 여전히 농업사회였다. 정옥을 자극하는 것이 비교적 드물었고 있더라도 감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상업화 이후로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으며, 곧 고속도로 가에서 섹시한 옷을 걸치고 빈랑(檳榔)열매 파는 여인들처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정옥은 구체적인 시각, 청

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자극하였고 빠르게 확산 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워졌으며, 점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색정범람’으로 변했다. 책 가판대에서는 각양각색의 그림과 문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명나라의 <금병매>를 본다면 내용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눈이 동그래지고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감각기관의 자극은 몸을 갖고 장난하는 것으로 변한다. 자신의 정욕을 분출의 임계점까지 억압하는 것은 가장 황홀하다. 그래서 ‘통쾌’라는 말이 나오는데, 때때로 고통과 쾌감은 서로 이어져 있다. <금병매>에서 어떤 정욕들은 학대로 변해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의 쾌감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즐겁지 않다.

<금병매>와 ‘빈랑 파는 여인’이 자극하는 것은 모두 정욕의 말초신경이라서 내면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실제로 고통을 없애려면 더 높은 차원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남자아이들이 무협소설을 보고 정욕의 고통을 전환한 것처럼 말이다.

소설에서 고통을 읽다

정욕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나의 단편 소설집 <고독하기 때문에>속의 첫 번째 소설 <더위죽은 앵무새(熱死鸚鵡)>를 인용해 말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한 의과 대학생이 나에게 알려 준 것이다. 그는 선생님을 짝사랑했다. 이것은 그의 사적인 비밀이다. 나는 이것을 공적인 일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를 놀라게 했고, 그것을 소설로 쓰고 싶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는 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은 맘 속 고민거리를 나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그 여학생, 그녀가 네 개의 신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교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 하지만 나는 드러낼 수 없었다. 내가 놀란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다시는 말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경청하며 조용한 청중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청자는 아주 매력적인 역할이다. 한 학생이 갑자기 뛰어와서,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얼굴 가득 눈물범벅이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아마 그가 한 시간 동안 울면서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말을 좀 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 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다.

그 의과대학의 학생은 해부학 수업시간에 노교수의 대머리를 보면서 그가 냉정한 목소리로 오귀스트 콩트의 철학과 실험연구의 결과를 강의하는 것을 들으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매력을 느꼈다. 당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대머리에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그것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한 가지 특징이다. 제삼자는 이해할 수 없다.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전체의 고독이 깨진다.

<더워죽은 앵무새>에서 이 의과대학 학생은 노교수가 실증주의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을 듣는다. “너는 절대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한다. 어떤 주관적인 도덕정서를 가지고 물질적인 존재 본질로 돌아가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몸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선생님에게 빠진 이유가 콩테의 실증주의를 그의 세계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생님에게 빠져든 것이 황당한 일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끌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하던 앵무새가 더워 죽었다. 학생들은 해부 분석으로도 앵무새가 더워죽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앵무새가 더워 죽기 전에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도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소설 마지막에 결말이 없다. 앵무새는 하나에 기호일 뿐이다.

앵무새가 등장한 것은 내가 이 소설을 쓸 때 동물원에 갔기 때문이다. 앵무새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 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앵무새를 보며

갑자기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앵무새의 깃은 선명해서 눈길을 끌었다. 사람 말을 따라 할 줄도 알았다. 그 앵무새가 만약 “너를 사랑해”를 배웠다면 소리를 따라한 걸까 아니면 내용을 배운 걸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내용이 있을까? 아니면 소리일 뿐인 걸까?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친구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계속 대화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내 생각에, 사람의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분은 아마 앵무새일 것이다. 일부분의 언어는 생각과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의 언어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일본 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한 편을 기억한다. 결혼한 지 오래된 노부부를 그린 작품이다. 아내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네”하고 뛰어가서 물건을 가져다주는 습관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장면에서는 아내는 항상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녀는 평소처럼 “네”라고 대답하고 뛰어간다. 하지만 남편은 “부르지 않았는데...”하고 말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나타났을 때, “양말 좀 가져오라”고 말한다. 모든 관객은 남편이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이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혹은 그녀는 한평생 남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일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고 관계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영원히 어떤 관계가 있다. 까뮈도 <이방인>에서 파리 거리에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애완동물이 모두 주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관계인 것이다.

몸의 존재를 인식하다

나는 <더워 죽은 앵무새>에서 앵무새를 일종의 기호로 사용해 의과대학 학생들

의 모종의 풀 수 없는 정욕을 대신했다. 그는 휴가를 가서 태양을 쬐이다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자신의 몸을 어루만진다. 손가락이 교수님 손에 든 해부 나이프라고 상상하며 자신의 젊은 스무 살의 몸을 긋는다. 골격, 허리, 가슴.....이것은 절대적으로 정욕이다. 하지만 그가 해부학에서 배운 냉정과 얽혀있고, 그 자신이 억제하기 힘든 열정과도 얽혀있다. 그는 정교한 갈비뼈가 텅 빈 공간을 에워싸고 있으며, 안에는 혈액의 순환을 일으키는 심장이 펄떡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자기 폐의 호흡과 위의 꿈틀거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해부하는 중 이었고, 또 정욕을 푸는 중 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사정을 한다.

나는 열여섯 살 때 <홍루몽>을 읽었다. 보옥의 몽정 하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것은 몸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터져 나올 것이다. 정욕의 고독도 몸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두 정서가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객관과 냉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가해한 몸과의 관련성이다.

사망인식에서 나온 몸은 하나의 육체이고 몸뚱이이다. 그리고 죽음은 몸과의 이별이다. 사람은 몸과 작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감정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원래 나의 몸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구나'하고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평상시에 우리 모두는 몸을 사용할 뿐, 몸이 진정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정욕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위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내장기관, 그리고 분비물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먼저 결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더위 죽은 앵무새>에서 놀라운 사제 간의 애정을 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앵무새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책 속에 로마자 발음기호로 남겨둔 수수께끼를 풀었을 것이다. 그 말은 '포스트모던'이다. 당시 각계에서 '포스트모던'을 공염불처럼 외는 현상을 조롱한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새 책을 발표할 때 모두 그 말에 대

해 흥미를 가졌지만 나는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을 고독한 사람과 하는 대화로 삼고 싶다. 나는 이러한 고독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갈팡질팡하지만 고독은 충만한 것이다. 장자가 말한 “홀로 하늘과 땅의 정신과 감응한다”는 것은 생명과 우주간의 대화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이미 가장 완벽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 '독(獨)'은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도 사용했다. <월하독작(月下獨酌)>에서 그는

꽃밭 사이에서 술 항아리 놓고
친한 벗 없이 홀로 마시네.
잔을 들어 밝은 달을 칭하여
그림자와 더불어 셋이 되었구나.

라고 읊었다. 이것은 일종의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고독이다. 그는 함께 술 마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고독만이 가장 완벽한 것이다. 또 마치 망망대해 앞에 섰을 때 혹은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마음속에 솟아나는 “속세에서 벗어나 높은 산에 올라 옷에 붙은 속세의 먼지를 털어내고 만리를 흐르는 강에 발을 담가 속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그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은 일종의 완벽한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고독이 일종의 복이라고 말한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수록 더욱 사람들과 접촉하려 하고 그런 후에 포기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 천년 동안 찾아 헤맨 반쪽을 놓쳐 버릴 것이다. 가끔 나는 타이베이 변화가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며, 도시가 사막보다 더 황량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다들 이렇게 가까운데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고독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다.

언어 고독

소설을 쓸 때, 나는 동물학, 인류학, 사회학 혹은 생리학 연구서들을 섭렵한다. 나는 많은 작가들 혹은 예술창작가들이 모두 이럴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문학 혹은 철학, 예술은 종종 일종의 개인의 사유 방식이거나 일종의 주관적 느낌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약 동물학, 생리학 등 과학지식을 인용한다면 작품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창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열대지역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한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의 말은 창작자들에게 자주 인용된다. 프랑스어 *post coitum animal triste*, 해석하면 “섹스 후 동물적 감상”이다.

나는 ‘섹스’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Coitum*은 ‘성의 극도의 절정’을 말한다. 성의 자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리학이 정의 내린 성적 쾌감의 절정, 아마 호흡이 정지하는 일종의 상태 일 것이다.

아마 당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절정이 지난 후, 엄청난 공허감을 느끼고, 한 순간 모든 기대와 공포가 사라져서,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앞서 말했듯이 정욕의 고독의 본질은 죽음인식과 비슷하다. 이 때, 꼭 껴안고 있는 상대방이 절대 당신과 소통할 수 없고, 자신은 완벽하게 고독한 한 개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산후 우울증은 또 다른 종류의 비슷한 상황이다. 많은 임산부들은 산후에 공허감을 느낀다. 마치 꼭 차있던 몸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만 같다. 가끔 우리는 ‘산후 우울증’이란 말로 위대한 계획을 완성한 창작자를 묘사한다. 예를 들어 감독은 연극 무대의 막이 내려가는 그 순간, 일종의 비이성적인 우울상태에 빠질 수 있다.

소설을 쓸 때, 나는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오히려 이

상한 서적들을 손 가는 대로 넘긴다. 예를 들어 동물, 인류생리구조에 관한 책들이 다. 책 속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은 작품과 흥미로운 연결을 만든다. 예를 들면 <더워 죽은 앵무새>와 이어서 말할 <혀에 관한 고증>이다.

자유분방한 상상의 세계

<혀에 관한 고증>을 쓰기 전에 나는 재미있는 것을 읽었다.

책에는 양서류 동물이 혀로 알을 핥거나 혀로 알을 식물 위로 옮겨, 알이 태양빛을 받고 부화하게 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 부분을 읽기 전에는 혀가 생식행위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혀와 언어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동물에게 있어 혀는 다른 용도도 있었던 것이다. 만약 수풀 속에서 청개구리 혹은 두꺼비를 관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혀가 아주 놀랍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아주 길게 늘어나고 게다가 날아다니는 모기를 아주 정확하게 잡아채서 입 속으로 말아 넣는다. 혀는 완전히 언어의 기능만을 하지는 않는다. 많은 동물에게 혀는 사냥감을 잡는 도구이다.

동물언어와 혀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다. 우리는 개가 짖는다, 이리가 운다, 사자가 포효한다, 새가 운다 등 표현으로 동물의 소리를 묘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이다. 다만 우리가 식별하지 못할 뿐이다. 언어는 아마도 인류의 전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동물도 다양한 소리로 일부 행동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애 혹은 먹이 구하기이다. 하지만 서로 비교해보면 인류의 언어는 훨씬 복잡하다. 인류의 언어는 극도로 정확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주어, 동사, 형용사, 모든 글자의 발음은 모두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물고 글자를 씹는다”라는 성어를 쓴다. 이 물고 씹는 과정에서 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혀는 도구와도 관련이 있다. 나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 중에 혀가 아주 긴 동물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슨 동물인

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용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그것을 이무기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용이나 이무기의 형상과는 달랐다. 만약 타이베이시 남해(南海)로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다면, 어떤 청동기들은 양쪽 귀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과충류 동물 조각과 닮은 한 쪽 귀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혀는 몸길이만큼 길고 청동기의 받침판에도 혀를 내민 동물이 있다.

대략 팔구십 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후 호남(湖南) 지역에서 높이가 1~2미터인 진묘수(鎭墓獸) 한 점이 출토되었다. 신호등만큼 큰 눈 두 개에, 중간에 있는 혀를 양 발 사이까지 늘어뜨린 조형물은 상당히 기묘했다. 춘추전국시대, 오늘날 하남(河南) 지역 일대에 위치한 정(鄭)나라부터 호남 지역 일대에 위치한 초(楚)나라까지 모두 혀를 내민 동물이 많이 출토 되었다. 그 원인은 현재까지 여전히 수수께끼다. 미술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일종의 디자인, 조형물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의 인류가 이러한 동물의 형상을 새길 때, 조형보다는 제사나 신앙의 목적에 더욱 주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혀를 내민 동물의 형상은 분명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내가 혀와 관련된 소설을 쓰려는 맘을 먹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의 소재가 되었다. 이것은 소설을 쓰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창작자는 터무니없는 상상으로 인류가 아직까지 탐구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다.

서양에서든 중국에서든 예전에 소설은 주류문화가 아니었다. 주류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작자는 비주류의 방식을 이용해서 생명 안의 각양각색의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을 말할 수 있었고, 주류문화의 감시와 제한을 받지 않았다. 김성탄(金聖嘆)이 말하는 소위 ‘사대재자서(才子書)’나 중국고전 명저 <홍루몽><수호지><삼국연의><서유기> 혹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등이 있는데, 모두 자유분방한 분류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 주었다.

내가 <혀에 관한 고증>을 쓰기 시작했을 때, 길을 걸을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사람들 얼굴 위 어두컴컴한 구멍 속에서 펄떡거

리는 혀를 관찰하고만 싶었다.

모두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

나는 사람의 언어가 정말 기이해서 혀가 구강 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복잡하고 뜻을 나타내는 행위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언어 시스템은 혀를 사용하는 방식마저 다르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자신이 원래 사용하는 혀의 발음 방식이 결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은 권설음을 발음할 수 없음을 느끼거나 d와 t, b와 p의 소리가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어(漢語)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혀가 부드러운 편이다. 특히 일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언어 구조는 매우 간단해서 그들이 외국어를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많은 발음을 소리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한 일화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십 년대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회의에서 매우 격앙되어 논문 한 편을 읽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단 아래 사람이 말하길 “실례합니다만, 사람을 불러 영어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일본대사는 아주 화가 나서 대답하길,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영어입니다” 라고 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과 ‘못 알아듣는 소리’를 듣는 것은 모두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다. 무엇이 ‘못 알아듣는 소리’인가? 예를 들어, 당신은 부농족(布農, 대만의 원주민의 하나)족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당신이 부농족의 제사의식에 참여해 모든 사람들이 부농족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이 들은 것이 언어가 아니라 음악이고 일종의 논리적인 구조의 소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러한 소리를 내는 방식을 이용해 혀의 동작을 연습하고 싶을 것이다.

나는 대용동(大龍洞)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접할 기

회가 있었다. 이곳의 대부분의 주민은 민남어를 모어로 했다. 하지만 소수의 객가인도 있었다. 우리 집 부근에는 권촌(眷村, 군인 가족 숙소)도 있었다. 권촌 안의 언어는 동서남북 각 지역 말이 다 있었다. 운남어, 귀주어 등, 모든 집의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소리가 다 달랐다. 당시에 나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언어의 세계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못 알아듣는 언어 때문에 감동받은 것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이다. 나는 파리의 남쪽에 방 하나를 빌렸는데 지하철의 종점 역 근처였다.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서도 좀 더 걸어야 했다. 집주인은 중국 절강성 닝보 사람이었고 식당을 운영했다. 어느 날 나는 닝보 사람인 집주인의 어머니가 프랑스인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말하는 속도가 아주 빨랐다. 나는 프랑스에 온지 일 년 밖에 되지 않아 프랑스어를 더듬더듬 하는 정도여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유창하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녀가 말하는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음조가 도레미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닝보말이었다.

닝보 아주머니는 닝보 말을 하고 프랑스 아주머니는 프랑스어를 했다. 둘은 아주 오랫동안 말했는데, 아무런 충돌도 없었고, 아무런 오해도 없었다. 또한 오해할 기회도 없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공통의 언어가 오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공통의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 중 한 명이 일본인에게 시집갔는데, 부부간의 대화가 정말 재미있다. 주로 사용하는 말은 영어지만 대화중에 중국어나 일본어가 조금씩 섞이기도 한다. 이 조금씩 섞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행복 넘치게 한다. 나는 갑자기 무척 부러웠다. 매일 신문뉴스에서 보는 비방, 비판, 아우성은 모두 그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만약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아마도 좀 나올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듣고 싶지 않기’때문이다. 상대방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 아마 시작하자마자 안들을 거라고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call-in프로그램이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같은 말일지라도...

이것은 언어의 한계이다. 마치 자신이 별판에 서서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괴물이 된 것 같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민족

동물의 혀에서 청동기 위의 혀를 내민 형상,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까지 모두 이 이상한 소설<혀에 관한 고증>을 만들어 냈다.

이 작품도 소련해체와 현대 중국의 상황 등 정치문제와 관련이 있다. 나는 한 인물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여상(呂湘)이고 후난의 인류학자이다. 그를 통해 초나라 분묘에서 출토한 혀를 내민 괴물과 언어에 대한 나의 관심을 서술했다.

나는 소설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허구로 지어냈다. UN 유네스코 안의 한 고고학팀이 남미의 고지대에서 천칠백 만 년 전의 암컷생물 유해 한 구를 발견한다. 이 유해가 출토 된 후, 인류학자는 이것이 동물인지, 원인(猿人)인지 혹은 현대인류인지를 확정지으려고 한다. 인류의 끈은 척추처럼 이 유해도 마침 척추가 직립이었다. 다만 아주 작은 꼬리뼈가 있어 캥거루가 뒷발로 끈게 서서 꼬리를 이용해 몸의 자세를 지탱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발견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띤 연구가 이루어진다. 발트해의 에스토니아에서 온 인종학 교수 우리즈베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시카고의 학술회의에서 그의 좌파 유물사관으로 이 유해가 인류 최초의 모성 유해라고 인정했을 때, 회의장 전체가 들쭉거렸다. 이 상황은 <어린왕자>에서 터키의 천문학자가 한 행성을 발견했을 때와 좀 비슷하다. 그가 발표할 때 터키의 전통 복장을 입었는데 이는 학계의

관례와 너무 맞지 않아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우리는 학계에 외적인 관례들이 있는데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형식으로 치우쳐서 당신의 창의성이나 논증의 정확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외적인 짜임새를 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 구두 심사에 참석해 본 사람은 바로 알 것이다. 구두 심사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늘 논문의 색인, 참고 자료이지 논문에서 당신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새로운 의견이 아니다. 황당하게도 모든 것이 외적인 것이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 내재적인 본질은 완전히 잊혀지고 일종의 외적으로 유형화된 부호가 되었다.

<정옥의 고독>에서 나는 유가 문화가 고독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거대한 유교의 전통 도덕은 사실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 세밀한 수사(修辭)를 하는 것도 장려하지 않는다. 공자는 ‘교언영색 선의인’, 즉 교묘한 말과 좋게 꾸민 얼굴빛 중에는 인이 드물다라고 말했다. 공자는 인은 생명 안에서 가장 선량하고 숭고한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너무 유려하고 표정이 너무 풍부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하지 않다고 여겼다. 공자의 이 말은 모든 민족에 영향을 끼쳐 말을 할 때 표정이 별로 없고 말도 소박하게 만들었다.

“말을 조심히 해라”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 자주 듣던 훈계가 아닌가. 손님이 왔을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부모님은 체면을 잃는다고 생각하였고 손님이 가거나면 벌을 주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무엇이 체면 서는 말인지, 무엇이 체면 잃는 말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결국에 아이는 말을 안 하게 된다.

언어와 문화습관은 아주 큰 관련이 있다. 그리스 문화 중에는 수사학과 논리학이 있는데, 논리학은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바로 <대화록>, 즉 언어의 논증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언어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 서양의 국회의원들이 말할 때, 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왜 그럴까?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나?”하고 답답해진다. 상대적으로 공자는 사람의 내재하는 것이 외재하는 것 보다 많기를 요구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을 아주 듣기 좋게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

는지” 더욱 자세히 살폈다. 행동이 말과 부합하지 않다면 그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서양의 언어에 대한 혼란에는 절대적인 좋고 나쁨이 없다. 이것은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언어를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언어를 경시하는 유교

춘추전국의 제자백가 사상이 모두 언어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공손용, 혜시의 ‘명가’학파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인의 논리학⁸⁾이다. 명가에는 소위 말하는 ‘백마비마’의 논리 변증이 있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흰 말을 가리키며 당신에게 “이것은 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짜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학이다. 언어논리로 보면 흰말과 말은 두 개의 다른 개념이다. 만약 이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면 유교적이라 할 수 있다.

백마비마론이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이다. 그리스 문화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교언영색’으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 각 사상은 모두 저술로 후세에 전해졌지만, 명학은 그 경전을 찾아보기 힘들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문장들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백마비마’나 ‘난유모(卵有毛)’류의 우화들은 명학 학파가 언어의 구조를 발전시킨 토론이다.

서양의 기호학도 언어의 구조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사상의 내용을 검증하기 전에 언어의 합리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언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뱉어 놓은 말도 분명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먼저 틀린 부분을 명시하고 그런 후에 기호학의 정론을 찾는다. 우리의 문화는 이 방면의 경험이 적다. 그래서 정치인의 언어가 모두 매우 혼란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양의 정치인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신경 쓴다.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에 대해 이런 엄격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언어의 함의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자주

8) 논리학은 ‘명학(名學)’으로 번역한 사람도 있다. 다만 지금은 음역인 邏輯學을 주로 사용한다.

발생한다.

장자의 철학에서도 언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장자와 그의 친한 친구인 혜사의 대화가 유명하다. 그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보고 있었다. 장자는 “봐라, 물고기가 물 속에서 헤엄친다.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말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 오늘날 장자 옆 사람이 공자였다면, 분명 혜자처럼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는가?” 이 질문은 언어의 수사학, 기호학에 들어간다. 혜자의 의도는 장자의 묻는 말에 논리 검증을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곁에 혜자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장자는 “너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를 거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답했다. 장자는 혜자의 논리로 혜자의 추론을 뒤집었다. 이어지는 대화는 모두 논리의 변증이다. 유교의 전통적 도덕으로 보면 완전히 배척해야 하는 아무 의미 없는 대화이다. 만약 명가가 발전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유교문화의 언어에 대한 경시를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 유교문화는 언어의 정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유교의 언어는 시에 가까운 언어로 일종의 마음 속 깨우침이고 언어를 아주 단순한 상태까지 간략화 시켰다.

언어의 국한성

인류의 언어문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발전이 있었다. 하나는 ‘시’로 발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조문’으로 발전한 것이다. 법률조문은 반드시 정밀하고 정확할 것을 요구하며, 분명한 조목(세목)으로 모든 모호함을 방지한다. 그래서 현재 국제법, 공약 등에 통용되는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불어는 이러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반대로 가장 부정확한 가장 모호한 언어다. 하지만 아주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항상 정확하지 못하고, 정확함은 늘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아무도 <육법전서>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시경>을 아름답다고 한다.

공자는 본래 법률을 좋아하지 않았다. <논어>의 한 장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는 양을 훔쳤고, 이 아이는 떳떳하게 아빠를 고발했다. 공자는 그렇게 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고발하는 사회는 이미 그가 동경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중시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윤리나 도덕이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것은 법률이다. 법률이 줄곧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문자에 대한 방어이다. 방어가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인간성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과 공자가 주장하는 인의도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유교를 정통의 주류문화로 삼을 때, 언어는 '시'로 향하게 되지, 법률조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혜강이 사십의 나이에 형장으로 떠밀린 이유는 “위로는 천자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고, 아래로는 왕후에게 봉사하지 않았다. 시대와 세상을 무시하고, 오늘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풍속을 어지럽혔다.(上不臣天子, 下不事王侯, 輕時傲世, 無益於今, 有敗於俗)”였는데, 그 죄상을 읽어보면 한편의 시와 같다. 이러한 죄상은 중국역사에서 드물지 않으며, 심지어 ‘아마 있을 것이다’ 세 글자만 있기도 했다. 이것은 모두 전통적으로 중국이 법률이 장려하지 않고 언어를 중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나는 줄곧 모순적이었던 것 같다. 언어가 그리스어나 프랑스어처럼 정확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은 잠재의식 속에서 정확한 언어를 뒤집는 즐거움을 얻고 있었나? 왜냐하면 정확한 언어 그 자체가 역설적이기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언어가 더 정확해지게 하는데, 언어가 더욱 정확해져서 이도저도 될 수 있는 모호성이 거의 사라지면, 언어는 가지고 있어야 할 탄력성을 잃게 된다. 언어는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써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소설, 문학작품을 쓰는 것은 원래 언어를 뒤집는 각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땅히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것은 결코 ‘그 모양’이 아닐 것이다.

개울의 물은 어떻게 그렇게 맑은가? 수원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다. (問渠哪得清如許, 為有源頭活水來)

어떤 사람이 물을 것이다. 언어는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뒤집어야 할 것이 언어인가 아니면 생각인가? 언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분명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린 아이가 웅알웅알 말을 배울 때,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 이것은 먼저 내용이 있고 나서 언어가 있는 형식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언어는 이미 그 뒤에 생각이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유창해 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술이 계속 움직인다. 나는 그의 언어 속에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그렇게 변할까 봐 무섭다. 언어가 관성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특히 강단에 서서 강의할 때, 말이 형식화 되는 것이 특히나 두렵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진행자가 제문을 낭송할 때와 같다. 나는 늘 앞부분의 몇 년 몇 월 몇 일과 마지막에 “아아, 슬프도다.”만 알아들을 수 있다. 중간은 완전히 알아들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음조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언어 형식화의 결과이다. 그는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여부는 개의치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읽으려고 할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개념적인 언어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자신의 언어를 점검해야 한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는 수원을 만들어 언어가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언어는 경직되지 않고 생기를 잃지 않는다.

얼마 전, 나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였다. 한 친구가 “전에 회의했을 때 외치던 구호, ‘12청년수칙’ 기억하니?”라고 물었다. 나는 첫 조항인 ‘충성과 용감함은 애국의 근본이다’와 마지막 조항인 ‘끈기는 성공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은?

몇 사람이 이 조항 저 조항 덧붙였지만 12수칙을 다 채울 수 없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매일 외워야 하는 것이었다. 형식화 된 후에는 언어와 생각이 분리되어

소리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소리들은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언어를 뒤집는 육조혜능

그래서 우리는 전복을 통해 언어가 굳어지고 죽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언어든지 모두 반드시 전복되어야 한다. 유교 집단 문화의 언어뿐 만 아니라. ‘명가’ 혹은 그리스의 논리학 역시 마찬가지다. 기호학은 논리를 전복시킨다. 만약 ‘명가’가 중국의 전통 도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복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문학은 구시대 문학을 뒤엎어 그것을 파괴한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의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송대의 문학에 다른 계열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공안(公案)문학’이다. 어찌 전복이 아니겠는가?

공안문학은 중국 백화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발전은 중국 당나라 때에 와서는 이미 점차적으로 형식화되고 있었다. 불경의 번역, 부처의 설법 내용을 포함해 모두 더 이상 연민과 인간적인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불경을 읽는 사람은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오운개공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색...”하면서 반야심경을 계속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도 소리에 감정이 없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 없는 것이 불경을 읽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종이 생겨났다. 선종은 언어를 믿지 않는 종파이다. 그들은 모든 언어는 오해라고 생각했고 모든 언어는 수행자를 더 황당한 수행에 반하는 길로 향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도 사용하지 않았다. 불법의 대의는 한 줄 한 줄의 공안이 되었으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백화로 불법을 발전했다.

선종은 석가모니의 ‘염화미소’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가 꽃 한 송이를 들어 제자 가섭에게 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 꽃을 건네받고,

가섭이 미소 지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 말은 전혀 필요 없었다. 달마대사는 선종의 제 1세대이다. 그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소림사에서 9년간 좌선수행을 했다. 언어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으로 성현의 도를 전했다.

좌선수행의 침묵은 한 사람의 고독한 언어이다. 그는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자선만이 알 것이다. 고요하게 고독의 상태에 있을 때, 내면의 언어가 떠오른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소통 할 때, 언어는 다른 종류의 상태를 보여 준다. 그래서 선종이든 아니면 서양의 종교든 모두 독거수행 의식이 있다.(천주교에서는 침묵피정이라고 부른다). 수행에 참가한 사람은 보통 첫째 날 매우 괴로워한다. 어떤 이는 곧 미칠 것 같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달마는 이 방식을 통해 언어를 밖을 향한 행위에서 내면을 향한 행위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조, 삼조, 사조, 오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전했다.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혜능대사에게 도를 전한 이야기는 언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전복의 예이다. 선종이 오조 홍인대사에 이르렀을 때, 이미 큰 종파로 변해 있었다. 많은 제자들이 의발을 전수 받아 법통의 계승권을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는 계승자를 찾을 때 매우 고민스러웠다. 이 이야기는 <육조단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 보면 마치 무협 소설과 비슷하다. 많은 승려들이 육조 자리를 쟁탈하려는 것은 흡사 무협소설 속에서 무림 맹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과 같다. 내 생각에는 오조가 계승자를 찾는 과정에서 일종의 고독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언어문자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많은 계승자 후보 중에 신수가 가장 유망하였다. 그는 계승 한 수를 썼다.

몸은 보리⁹⁾ 나무
마음은 밝은 거울.
언제나 털고 닦아
먼지 묻지 않도록 하리.

9) 깨달음을 뜻함

제자들은 앞 다투어 암송했다. 오조는 듣고는 의견을 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보고 예측하게 했다. 이 계송은 널리 퍼져, 주방에 혜능이라고 불리는 주방 승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매일 장작을 깨고 밥을 짓는, 이 글자도 모르는 문맹의 승려는 불경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상층 계급의 문화를 접촉해 볼 기회도 없었지만, 바로 대답했다.

보리라는 나무는 본래 없고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닐세.
본래 물건 하나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요.

만약 수행자가 더러운 것을 무서워한다면 수행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오조는 혜능의 계송을 듣고, 늘 그렇듯이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허튼소리” 라고 한마디 했다. 그런 후에 혜능의 머리를 세 차례 치고는 뒷짐을 지고 나갔다. 이야기는 여기에 와서 신화가 된다. 혜능은 머리를 세 번 맞고 곧 바로 오조의 의미를 이해했다. 한 밤 중에 달려가 오조의 뒷문을 두드렸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유일한 언어가 “허튼 소리”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모두 행동이다.

혜능은 반야 삼경에 오조 홍인대사의 문을 두드렸고, 오조는 그에게 앉으라고 한 후 <금강경>을 그에게 읽어주었다. 불법 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강경>이기 때문이다. ‘미련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자비심이 일어난다’ 까지 읽었을 때, 이 대답한 주방 승려 혜능은 홍인대사에게 “스님,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조는 정말로 더 말하지 않고, 바로 가사와 바리때를 그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바로 도망가라고 했다. 오조는 그에게 필요할 때는 의발조차도 버려야 한다고 일렀다. 혜능은 의발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매현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다. 후에 혜능은 광동의 황매에서 도를 전했는데, 이는 새로운 선종인 남종이 되었다.

남종 계통은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발전시킨 것이다. 당나라 정통 문화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문자 체계를 받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나무를 패던 승려에게 전복되었고, 전복을 통해 새로운 구조가 창조되었다.

언어의 고독이란 무엇인가?

언어의 고독은 전복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정통 문화에서 발생한다. 이 정통 문화는 필연적으로 경직되게 되어있다. 모든 대학과, 정통 종교, 정당 모두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는 문화 구조만이 언어가 사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혜능대사는 언어문자에 대한 시비 분별을 통해 언어와 불법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늘 자신으로 돌아와 불법이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인지 사고 할 수 있었다.

혜능대사는 도망 중에 오조가 전수해 준 의발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사냥꾼 집에 숨게 되었다. 사냥꾼이 고기를 먹으면 그도 고기를 먹어 불교의 채식 계율을 깨트렸다. 그러나 ‘본래 물건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오.’ 혜능대사는 불법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외재적인 형식은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후에 육조 혜능대사의 금신불상은 소관의 남화사에 모셔졌다.

내가 절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서자마자 오체투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혜능대사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선종 공안 중에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대화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어린 제자가 불쌍하게 스승의 옆을 따르며 묻기를 “스승님, 무엇이 불법입니까?”하고 물었다. 늙은 스승은 항상 중요한 대목에서 시치미를 떼며 어린 제자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스승이 그에게 물었다. “밥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릇을 씻어라.”

이것이 바로 공안이다. <지월록>을 펼쳐 보면 안에는 모두 이러한 예들이다. 이것들이 일러주는 것은 어떻게 언어를 생활로, 더 소박한 백화로 돌아오게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본 선종의 사원에 가면 “차 마시러 가라”라는 짧은 글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백화이다. 무엇이 불법대의인지 물을 때, 선승은 “차 마시러 가라”라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질문과 무관하다. 사실 그는 전복적인 답안을 준 것이다.

만약 선종의 전복이 없었다면, 불법은 당나라 때에 이미 굳은 지식체계가 되고, 더 나아가 일종의 허상으로 변했을 것이다. 서양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전복을 겪었다. 기독교의 르네상스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전복은 성 프란체스코이다. 그는 당시에 이탈리아 지역의 방언으로 민요를 지어 대중에게 부르게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몇 곡의 노래로 바꿔놓으며 모든 기독교 체계를 전복 시켰다.

이 모든 것들은 언어의 전복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언어의 전복은 그렇게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은 층이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화성어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국어의 퇴보를 상징한다고 탄식한다. 때로 나는 선종의 공안이 당송 시대에 국어 퇴보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한 것은 모두 매우 저속한 민간 백화로 우아한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나라 현장 대사가 불경을 번역할 때까지도 모두 우아한 문자를 사용했다. 하지만 선종의 공안은 나오자마자 더할 수 없이 질박한 백화가 되었다. <지월록>과 <경덕전등록>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고독을 이기다

그래서 언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정확도까지 도달해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부부간에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떤 언어인가? 부부간의 언어에 대해, <수호전>의 ‘오룡

원(烏龍院)’ 대목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급시우(及時雨, 적시에 내리는 비)’라는 별명을 가진 송강은 길가의 한 부인이 딸을 데리고 몸을 팔아 남편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즉시 도움의 손을 뻗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빌미로 여자 아이를 첩으로 삼을 맘이 없었지만, 엄마는 반드시 그 아이를 첩으로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 실랑이 하다가 송강은 결국 받아들였다. 그는 ‘오룡원’을 사서 그곳에 머물게 해 놓고 가끔 가서 ‘염석교’라는 그 여자 아이와 함께 있어주었다. 사람들이 뒷담화 할 것이 두려워 늘 몰래 행동했다. 염석교는 이렇게도 젊은 자신이 늙다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더구나 이 남자는 죄 지은 것처럼 오는 등 마는 등 하니 달가울 리가 없었다. 하루는 송강이 일이 바빠서, 학생인 장문원을 보내 염석교를 살펴보게 했다. 두 젊은이는 말 몇 마디 주고받다 그만 좋아져버렸고, 장문원은 자주 염석교를 찾아가게 되었다. 소문이 송강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오룡원에 상황을 살펴보러 갔다.

염석교는 송강이 고맙기도 하고 밋기도 했다. 그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돈을 내준 것은 고마웠으나 아름다운 청춘을 그의 손아귀에 물어버린 것은 증오스러웠다. 그래서 그에게 예의 없이 말했다. 그날 송강이 들어왔을 때, 염석교는 수를 놓고 있었는데 송강을 모른 채 해서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거기에서 서성일 수 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할 말을 찾아 “언니, 그대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언니’는 부부간의 애칭이다. 하지만 중년 남자가 어린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염석교는 눈을 흘기며, 그가 참 시시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부러 “잔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송강은 “분명 신발이거늘, 당신은 어째서 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염석교는 그를 보며,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요?” 하고 말한다.

이 소설은 언어를 이렇게 묘하게 가지고 논다. 생각해 보라. 우리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 이러한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때때로 당신은 사실 무엇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독이나 쓸렁함을 없애려고 계속 말을 한다.

송강은 또 “언니, 당신은 낮에는 무얼 하시요?”하고 묻는다. 그는 물론 염석교의 말투를 살핀다. 염석교는 “내가 뭘 하나 구요? 내 왼손에는 마늘을 가지고 있고, 오

른 손에는 찬 물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마늘 한 입 물고 찬 물 한 모금 마시고 마늘 한 입 물고 찬 물 마시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걷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말이다. 염석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무료함’이란 말이지만, 이런 의미 없는 말들로 빙빙 돌려서 말한 것이다.

이런 시시껄렁한 말들처럼, 실제 우리의 하루하루, 일 분 일 초는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수호전>은 아주 현실적인 좋은 소설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 번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잔혹한 책이기 때문이다. 인간성에 대해 쓰는데 피가 낭자한 것들을 써서,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고, 찢겨지고 폭로되는 느낌이다. 이 책은 인간성의 메마름의 극치를 보여 준다.

이와 비교해서 일본 감독 오즈 야스지로는 이런 무의미한 언어 형식을 훨씬 따뜻하게 해석한다. 그의 <좋은 아침입니다>란 영화가 있는데, 이야기는 아침인사와 저녁 인사를 반복한다. 일본문화를 접해 본 친구들은 일본인의 경어와 예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만나기만 하면 안부 인사를 해야 한다. 영화 속 한 아이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료하게 매일 같은 말을 하는 걸까 하고 답답해한다.

사실 이러한 예절과 경어는 알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었다.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친근함과 소원함 간의 예절이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매우 고독하다. 우리는 언어로 서로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바라지만 버릇없어 보일까 두려워한다. 만약 충분히 친하지 않다면 소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난처하게 변한다.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고독의 따뜻함’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차 플랫폼에서 있을 때, 모두 서로 허리를 굽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이런 경어와 예절이 하루하루 반복 되지만, 영원히 내면의 고민거리는 나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호전>의 오룡원 부분과 야스지로의 영화 <좋은 아침입니다>를 비교

해 볼 수 있다. 둘 다 모두 무의미한 언어이다. 나는 그것을 ‘무의미한 언어’라고 부른다. 이 말들을 빼도 대화의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빼 후에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는 모른다.

<수호전>은 비교적 잔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빼는 것이 낫다고 알려준다. 결국 송강은 오룡원에서 염석교를 살해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 무료한 생활, 유지 할 수 없는 혼인 관계를 결말 짓는다. 그러나 야스지로는 한 남자가 기차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영화 막바지에는 그가 그녀 곁으로 가서 “좋은 아침입니다”란 말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 좋네요”라고 말하고 이렇게 끝내는데, 사람들에게 무한한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문학은 늘 언어전복의 특성을 이용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문학은 언어와 문자를 바탕으로 작가의 뜻, 이상, 인생관을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절대 간단한, 수식이 없는 진솔함 뿐인 것은 아니다.

의지가 장애로 변하다

어느 한 매우 훌륭한 문학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설 한 권을 볼 때, 그가 무엇을 썼는가를 보지 말고 그가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를 보라. 당신이 친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말고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고민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것을 쫓스러워 해서 그것들은 모두 고민이 아닌 척 꾸미고, 시간, 공간, 상황, 역할에 따라 변했다고 생각한다. 언어 자체는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 언어는 어떤 맥락에 두고 이해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 대한 의지는 결국에는 모두 언어의 장애로 변한다.

<혀에 대한 고증>이라는 소설에는 여상이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있다. 회의에서 그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우리즈베크 교수가 자본주의 사회학자에게 비웃음을 받자, 소련, 동유럽 등 공산 국가가 연합하여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항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다. 그도 자리를 떠나하나 아니면 남아야 하나? 그가 보여준 반응은 바로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이었다. 공산국가이면서 이미 소련 형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여상은 일생동안 줄곧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다. 문화대혁명 중에는 줄을 잘못 서는 비극을 맞이하고 ‘소 우리(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반동분자를 가두는 곳)’ 안에 갇혀 오랫동안 굶주린다.

문화대혁명기간 여상은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한 번은 홍위병이 무력투쟁을 해서 매우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여상을 감옥에 가둬놓고 잊어버려 그는 여러 날을 굶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으로 감옥 안에서 자신이 이미 죽은 줄 알았다. 죽을 때는 위에서 공허한 열기가 솟구쳤다. 그는 위가 자신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상은 조금 무서웠다. 그래서 감옥 안에 나무로 된 문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본 쥐가 나무 상자를 갉아먹는 것처럼. 나무 도막을 하나씩 하나씩 씹어서 부셨다. 시럽 같은 걸쭉하고 끈적한 액체가 될 정도로 씹은 후 다시 천천히 삼켰다.

중국대륙 문화대혁명의 주역인 홍위병은 모두 열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이 여상을 감옥 안으로 밀어 넣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여상을 망각해 버려서 그는 감옥에서 나무토막을 먹게 되었고, 얼마 동안 살 수 있었다. 이때 그는 언어라는 것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지도 몰랐다. 여상은 ‘먹는’ 물질적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정신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여상은 긴 시간동안 혀와 구강이 서로 위치를 바꾼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발음의 다름을 연습했다.

이것은 초인적인 인내와 학자의 추리하는 세밀한 두뇌가 없어서는 안 된다.

문화대혁명의 후기가 되어 출옥한 후에 여상은 아무도 모르는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혀와 입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통제를 통해 완벽하게 정확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목소리를 따라 하는 성대모사 놀이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마치 앵무새 같았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일 뿐, 내용은 없었다.

언어 놀이를 시작하다

아무런 일이 없는 밤에, 그는 앉아서 문혁기간에 그를 공개 비판한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한 번씩 따라 해 본다.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변성기가 오지 않은 어린 홍위병, 치아가 부족하던 이웃 아주머니..... 여상은 혼자 여러 역할을 바꿔가며 밤새 놀았다.

글을 쓸 때, 나는 많은 문혁 후의 중국 작가,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어떤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의 놀이였다. 어떤 것은 뛰어난 특기이기도 했다. 주문왕은 유편 당했을 때 <주역>을 썼고, 사마천은 궁형을 받고 <사기>를 완성했다. 사람은 가장 큰 재난을 겪을 때, 생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끌어낸다. 여상도 마찬가지였다. 홀로 수감되어 있는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과 언어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나는 대용동의 보안궁 앞에서 인형극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무대 뒤에서 보는 것을 좋아했다. 무대 앞 쪽에서 보는 여러 역할, 초선, 여포, 동탁

은 사실 한 사람의 손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대개 나
이 지긋한 분이였다. 그가 초선 역할을 할 때면, 그 분의 목소리, 동작에 모두 애교
가 흘러 넘쳤다. 인형을 움직이는 손 뿐 만 아니라 엉덩이도 실룩거렸다.

나는 사람이 역할을 바꿀 때, 모든 언어 형식과 마음의 상태도 함께 바뀐다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인형극은 서양에도 있다. 나는 동유럽 프라하에서도 본 적이 있고, 일본에도
'분라쿠(文樂)'라는 일종의 인형극이 있다. 인형극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황해대(黃海岱, 대만의 인형극 예술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데도 극을 할 때 순식간에 열다섯여섯 살의 간드러지는 여자아이로 변신한다. 여상
을 쓸 때, 나는 어렸을 적 인형극을 보던 때로 돌아가서 사람 모양 인형을 조정하
는 것처럼, 그가 자신을 비판하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따라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다른 점은 그는 이 목소리를 상상 속에서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끊임없이 되감고 재
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일생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마치 그 역시 이러
한 당시에 그를 괴롭히던 말들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문혁은 끝났지만
그는 관성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늘 어떤 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인지 잘 모른다. 때로 우리를 괴롭히던
말들은 삶 속의 또 다른 알 수 없는 구원이 된다. 또 대개는 소설 속에서만 전복적
인 방법으로 이러한 일들과 만날 수 있다.

여상, 너는 여전히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여상, 너의 물골을 좀 봐라. 너는 대중들에게 낯짝을 들 수 있겠는가?

*여상, 나와라! 여상, 너의 '문장'이라는 것을 좀 봐라. 아무 의미가 없다. 글의
식견이 좁다.*

여상! 여상.....

이런 목소리, 이런 얼굴들은 그가 투쟁대회에서 본 것들이고 감옥에서 하나하나
모방했던 것들이다. 서서히 이러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자신의 목소리로 변했고,

인류학 학자가 언어를 연구하는 범례가 되었다. 그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혀와 목소리의 관계를 자세하게 관찰했다.

그 목소리들은 진짜 목소리들처럼 살아나 캄캄한 밤에 조용히 메아리쳤다. 그러나 것처럼 많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도 혀의 위치와 조음에 대한 단순한 과학적 분석 원리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다.

조음할 때 혀의 변화는 매우 복잡해 보이나, 사실 그 규칙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목소리의 변화는 대부분 감정의 회로애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혀는 구강 안에서의 위치 변화를 통해 조음을 하나, 실질적으로는 볼 부분 전체를 움직이고, 더 나아가 몸 전체의 근육에 영향을 미친다.

여상은 이와 같은 일련의 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결국 목소리조차 가끔은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소리와 표정 모두 가짜다

나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사람은 모두 목소리가 거짓이며 때로는 허장성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친구는 그가 태어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대회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채찍을 빼앗아 그를 매섭게 후려친 친구라고 했다. 원래 그는 그 인민재판대회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채찍을 빼앗아 가장 악독한 말을 내뱉으며 그의 온 몸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채찍질을 했다고 한다. 그는 병원에 실려 갔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악독한 말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찍질이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이 말들을 들을 때,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사실 중국 고대의 희극 안에도 비슷한 줄거리가 있다. <조씨고아(趙氏孤儿)>에서 공손저구(公孫杵臼)와 정영(程嬰)은 조순(趙盾)의 홀로 남겨진 아이가 악당인 도안가(屠岸賈)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영

의 아들을 공손저구에게 입양하는 척 하고, 정영은 공손가문에서 고아를 숨기고 있다고 도안가에게 신고한다. 그러나 도안가는 두 사람이 결탁한다고 의심하고 정영이 직접 공손저구를 채찍질 하게 한다. 도안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정영은 공손저구를 참혹할 정도로 때려 결국 공손저구는 참수된다. 도안가는 정영을 심복으로 삼고 그의 아들(진짜 조씨 고아)을 양아들로 삼는다. 16년 후 조씨 가문의 고아가 자라서 정영으로부터 비참한 가족사를 듣게 되고 의부인 도안가를 죽여 복수한다.

나는 문화대혁명시기를 겪은 중국학자를 좋아한다. 그들은 학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식에 더해 인생 경험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연결하여 매우 감동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가끔은 그들이 일부러 미친 척 하고, 능구렁이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그의 진짜 마음을 알아 낼 수 없다.

감각의 전환

이렇기 때문에 여상은 어둠 속에서 발성을 거치지 않고 촉각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육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모방할 때의 얼굴 근육변화를 인식을 더 깊이 연구한다.

소설의 이 부분을 쓸 때, 나는 많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촉각으로 청각을 대체하는 놀이가 있다. 내가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혀의 위치를 만져보라고 가르쳤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혀의 위치가 제대로 놓여 있으면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교육법으로 학생이 선생님과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 틀린 발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혀를 잇몸 아래 놓고, 손을 사용해서 만져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소리를 낸다. 여상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동작이다.

우리는 모두 헬렌켈러를 알고 있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 대해 위대한 평론을 쓴 적이 있다. 그녀는 손을 공명상자 위에 놓고,

리듬과 선율에 따라 만들어진 진동을 촉각을 통해 듣고, 다시 그녀의 느낌을 썼다. 그녀는 인류의 감각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청각은 청각에만 그치지 않고 촉각으로도 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모든 소리가 질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짤랑하고 힘차다’고 한다. 이것은 말에 금속의 질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종처럼 우렁차다 혹은 목소리가 슬프고 간절하다고도 말하는데 모두 말의 질감을 묘사하는 것이다.

시나 사(詞)의 운(韻)으로 볼 때, 만약 ‘강양운(江陽韻)’, ‘동종운(東鐘韻)’을 사용하면 지어진 시는 ‘만강홍(滿江紅)’처럼 매우 격앙하고 장렬한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운모(韻母)인 ‘양’, ‘양’은 모두 공명이 강하고 우렁찬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만약 ‘제미운(齊微韻)’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폐구음(閉口音)이므로 소리가 작아 슬프고 애처로운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처(淒), 적(寂), 리(離), 의(依) 등 글자는 ‘제미운’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의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며 종종 소리의 질감도 읽을 수 있다. 어떤 글자의 소리는 가는 현악기와 같고, 어떤 것은 징이나 북과 같아 각각 다른 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직접 발음을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매우 세밀한 근육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왼쪽 눈 아래 약 2센티미터에 근육은 혀뿌리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도 내가 허구로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울을 보고 그 근육을 찾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나 발음이 영향을 미치는 근육, 내장 기관까지도 확실히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할 만큼 미세하다. 예를 들어 크게 화났을 때의 소리 혹은 가슴 가득 그리워 할 때의 소리를 낼 때 몸 안의 기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소위 ‘폐부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은 실재하는 것이다. 때로 나는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폐 전체가 뜨거운 것을 느끼는데, 서너 시간 동안 열이 없어지지 않기도 한다.

언어와 정서의 관계

나는 언어와 정서 간에 더 섬세한 관계도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내가 여상이라는 역할을 통해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혀뿌리는 종종 악독한 저주를 퍼붓는 욕의 언어를 찬양하는 말로 바꾼다. “여상 참 대단한데!”처럼.

‘여상 참 대단한데’란 말은 칭찬일 수도 있고, 악담일 수도 있다. 그는 좀 있다 머리가 잘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초 뒤에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나 여상은 이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상대방이 내뱉는 이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단련되었다. 여기에서 언어는 또 전복된다. 그 자체로 두 개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상 참 대단한데’라고 말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올 때, 이미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는 매우 복잡한 것이다. 절대 하나의 뜻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말고,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문학의 하이라이트다.

하지만, 혀뿌리에 힘을 주고 이를 갈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악독한 저주가 된다. 혀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 눈 위의 세밀한 근육 부분의 희미한 움직임을 주시해야만 볼 수 있다.

여상의 이 발견은 그에게 새로운 연구의 기쁨을 갖게 했다. 이 발견으로 그는 저녁에 다른 사람이 잠에 든 후에 혼자 방에서 연구를 하는가 하면, 그가 이러한 혀가 사람의 얼굴의 변화로 까지 넓혀지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을 때, 여상은 자주 길가로 나가 대로상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 간의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상냥한 안부 인사를 보았다. 여상만이 그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들으며 그 풍부한 사람의 안면근육 변화는 흥미롭기 그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자들은 이 글을 쓰는 작가가 그 기간 동안 자주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긴 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화의 틀을 벗어나 언어를 관찰할 때, 언어는 가장 놀라운 인류행동학이 된다.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복잡하다. 여기는 많은 인간관계와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에 언급한 송강과 염석교가 그렇다. 부부간의 언어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 그들은 서로 장난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싸우는 것 같을 수 있다.

장애령의 소설은 이것을 정말 잘 묘사했다. 한 부부가 길가에서 싸운다. 남편이 내뱉는 말은 말할 수 없이 악독하다. 심지어 부인을 때리려고까지 한다. 옆에 있던 사람은 두고 볼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다. 당시는 ‘신생활운동’을 펼치고 있던 때라 남편은 이렇게 부인을 대해서는 안 되었다.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려고 할 때, 부인은 경찰을 밀치고 남편을 잡으며 말했다. “집에 가요! 집에 가! 집에 가서 또 욕하고 또 때리세요.” 이것은 부부간의 언어이다. 보통사람이 지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말에서도 일종의 ‘타자가 알 수 없는’관계가 구축된다고 믿는다. 롤랑 바르트는 <밝은 방>이라는 사진 미학에 대해 이야기한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 할 때, 서랍 속에서 어머니의 5살 적 사진을 보았는데 그는 변덕 자신의 어머니도 5살인 적이 있었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다섯 살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계기로 사진과 영상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나는 언어는 이 사진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주 개인과 개인 간의 하나의 알 수 없는 연결고리로 변할 수 있다.

또 나의 모어(母語)와도 같다. 모어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언어이다. 이 언어는 나에게 있어 속박과도 같다. 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어머니를 뵈러 가서 어머니에게 모어를 사용할 뿐이다. 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나의 역할이 모두 바뀐다. 나의 평상시의 논리, 평상시 인간성 가치가 모두 사라지고, 어머니의 아들이 된다.

1988년도에 나는 서안에 도착했다. 나의 모어는 서안의 방언이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길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나의 모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아주 기이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나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모어가 바로 나의 모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모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것은 또 다른 기억 형식으로 유전자와 몸 안에 저장되어 아주 이상한 것이 된다. 개인에게 있어 모어의 의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나는 자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모어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최근에 하만남파안의 책을 읽고 있다. 그는 이천여 명만 남은 란위섬의 달오(達悟)족이다. 아주 열심히 그의 모어를 찾고 싶어 하지만, 이 언어는 대만의 일본 식민 시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민족이 민난어, 북경표준어를 할 수 있지만 달오어를 하지 못할 때, 모어가 그에게 가져다주는 비통함, 그의 삶에서 모어가 만들어 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의 상을 받은 소설인 <파도의 기억>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아버지가 여든 몇 세일 때 란위섬의 바닷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낮은 석양이 되었다’라고 썼다. 그는 중국어로 썼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낮은 석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노쇠하다’, ‘생기를 잃었다’, ‘황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만남파안은 이러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달오어의 특수한 언어 형식을 고수했다.

소통의 시작

우리는 서양 기호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언어를 ‘정확하면서도 오해를 만드는 도구’로 다시 정의 할 수 있다. 언어는 원래 양날의 검으로 기괴함을 가지고 있다. 전달하면서 또 전달을 방해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문학은 언어의 정확함 안에서 언어의 애매모호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함은 당신이 망연자실해 졌을 때 절에 가서 제비 하나를 뽑아 드

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그 제비가 당신에게 계속 교체해야 하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제비에 적힌 문구는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럴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당신에게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만을 줄 것이다.

나에게는 금속공예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밑천을 날려버릴까 무서워 절에 가서 제비 하나를 뽑았는데, 제비에 '동영이 몸을 팔아 아버지를 장례 치른다(董永賣身葬父)'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끝장이다, 몸을 팔아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은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달려와 나에게 이 일을 말했다. 나는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동영은 아버지를 물어드릴 돈이 없어서 풀 표식을 쫓고 길가에 앉아 몸을 팔려고 했는데 이에 감동 받은 천상의 칠선녀가 속세에 내려와 그를 도와주었다. 그 뒤에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신선처럼 살았다. 그러면 이 제비는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언어의 애매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면서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허에 대한 고증>과 <앵무새의 죽음>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없는 소설들이다.

중국에 돌아온 이후, 여상은 허 관련 논문과 중국의 모계 사회와 관련된 논문을 진행하는 한편, 자주 길가로 나가 허가 사람의 몸에서 일으키는 복잡한 작용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다.

그는 길가 행인의 왼쪽 눈 아래 2센티미터 넓이의 근육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것에 놀랐다. 몇 주안에 붕긋하게 솟아오르고 진홍색으로 변한 경향이 있었는데,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여상은 좀 불안했다. 그는 그를 복직 시켜줄 때, 온화한 어조로 칭찬해주던 간부가 떠올랐다. 그는 또 시카고의 토론회에서 자리를 뜨지 않은 일이 꼬투리를 잡힌 게 아닌가 하고 까닭 없이 생각이 났다. 그는 좀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동안

대로를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길을 물었다. 여상은 귀신을 본 것처럼 ‘으아’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그는 북경사회과학원에서 쓸데없는 말 뿐인 보고서를 대강 발표했으며, 그가 마리스벡커 교수에게서 받은 깨달음과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후난으로 돌아와 길모퉁이에 혼자 서서 뉘을 잃고 행인을 쳐다보았다.

여상의 괴이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그들은 그가 불치의 에이즈에 걸렸다고 추측했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문화가 특이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상응한다.

마을에 일 없는 여자들은 여상이 오랫동안 혼자였고, 또 미국에 가서는 여관에서 못 이기는 척하며 창녀와 놀아나 불치의 에이즈를 얻었다고 소문냈다. 에이즈의 초기 증상은 길가에 서서 사람 보는 것을 좋아하며 팔자가 나쁜 사람에게 병을 전염 시킨다고도 운운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여상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난했다. 이것은 집단 문화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고 여론의 힘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말의 힘은 이렇게나 크다. 금속도 녹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사실 여상은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북경에서 고향에 돌아온 후 계속 전 국민의 왼쪽 눈 아래에 그 점차 붓고 솟아오르는 진홍색의 근육을 염려했다. 혀와 여성의 진화와 관련된 연구를 전념해서 계속해 나갈 수 없었다. 한번은 고향에 대만 동포 방문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 따라 뛰어가서 보았다. 고향 사람들은 에이즈가 전염될까 두려워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여상 혼자 목에 힘을 주고 방문단의 버스 앞으로 걸어갔다. 대만의 한 방문자가 보기에 여상의 기세가 대단하여 고위간부 인줄 알고 ‘대만동포방문단’이라는 작은 삼각기를 들어 흔들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와 여상과 악수 하며,

친절하게 “동지”라고 불렀다. 뜻밖에 여상은 “아!”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이 대만 동포의 왼쪽 눈 아래쪽을 계속해서 토끼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상은 바닥에 쓰러져 혼절했다.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병이 낫지 않아 53세의 나이로 죽었다.

나는 이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여상이 죽은 후 “남겨진 백발의 노모는 매일 저녁 큰 쇠칼을 들고 빈 도마에서 탁탁탁 칼질을 했다.”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이웃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그가 영혼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다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다만 이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여상의 어머니로 그려냈을 뿐 이다. “칼질을 하면서 욕을 한다. ‘천벌 받을 놈, 돌아와라, 천벌 받을 놈, 돌아와라’ 듣기로는 이것은 호남 지역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쓰고 좀 비통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내가 소설을 쓸 때 장막 뒤에서 인형극을 조종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러 개의 역할을 조종하는데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괴롭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쓰면서 나는 여상의 어머니는 우매한가 아니면 감동적 인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구별하기 힘들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의 풍습이 생각난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담하는 것도 같고 찬양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삶을 해석한다.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 여상이 죽었다. 그녀의 아들은 문화대혁명을 거쳤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마을사람들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지막엔 영문도 모르게 죽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쇠로 된 큰 칼을 필사적으로 휘둘렀다. 그녀가 휘두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자가 채워야 한다.

그래도 이야기 마지막에는 결말이 있다. 이것을 결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화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여상의 원고도 성의 ‘문련’이 정리했는데 정리 도중에 그의 새로운 <허에 대한 고증>에 관한 원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매우 적은 몇 십자 정도 뿐 으로 연구의

가치가 없었다. 기념하기 위해 유고(遺稿)로 삼아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문련' 기관지에 게재되었다.

여상의 유고 <혀에 대한 고찰>: 이 종족은 계속해서 오천 년간 타락하고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 신들의 저주를 받아 재앙을 당한다. 재앙의 시작은 여자와 여자 같은 남자들의 혀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고독이다. 언어가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언어는 비로소 소통의 가능성을 가진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독은 고독하지 않음의 시작이다. 고독이 무서워 고독에 떠밀려 고독하지 않을 원인을 찾을 때가 가장 고독한 때이다. 마찬가지로 언어가 소통불가성을 가질 때, 언어는 습관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따발총이나 콩 볶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하나의 소리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뜻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언어의 본질이 드러난다.